걸으며 만나는
내장산의
자연이야기..



국립공원
KOREA NATIONAL PARK



목 차

• 여는 글..

• 자연, 우리의 미래! 국립공원

• 사계절이 아름다운 내장산국립공원

• 내장산의 경관자원

• 내장산의 문화유적

• 내장산의 자연, 첫 번째 이야기 – 식물편

• 내장산의 자연, 두 번째 이야기 – 동물편

• 내장산의 자연, 세 번째 이야기 – 버섯편

• 내장산을 사랑하는 이야기 보따리꾼,
"자연환경해설사"의 이모저모

– 국립공원 자연환경해설사란

– 내장산국립공원 자연환경해설사의 다양한 활동

– 해설사에게 있어 국립공원은..?

• 내장산국립공원의 월별 생태달력

• 이 책을 마무리 하며...

• 참고문헌



여는 글...

봄 꽃천지, 여름 하청음, 가을 만산홍엽, 겨울 동설주...

사계절이 아름다운 내장산국립공원은 호남의 5대 명산으로 우리나라 21개의 국립공원 중 8번째로 지정된 아름다운 곳입니다. 사계절 중 "가을"하면 떠오르는 대표적인 국립공원이기도 하지만 수많은 동, 식물들이 서식하고 있으며 3조 6천억원의 경제적 가치가 살아 숨쉬고 있는 생태계의 보고라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소중한 내장산국립공원을 탐방하는 탐방객을 위한 안내와 공원 홍보, 미래세대를 위한 자연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자연환경해설사들이 내장산국립공원 알리미의 역할을 더 톡톡히 하고자 그동안의 수많은 해설자원모니터링자료와 활동상들을 엮어 한권의 책으로 만들어 내었습니다.

이 책은 내장산에서 볼 수 있는 많은 동식물들에 대한 이야기들을 담고 있으며, 자연환경해설사들의 해설과 함께 활용되어 미래세대와 수많은 탐방객들에게 내장산의 가치와 소중함에 대해 알릴 수 있는 중요한 자료가 될 것입니다.

이 책이 내장산국립공원의 해설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수많은 미래세대와 탐방객에게 생태적 감수성을 키울 수 있는 소중한 자료로 널리 활용되기를 기원하며, 아울러 국립공원의 소중함을 알리는 자연환경해설사들의 작은 노력들이 국립공원을 가치 있게 만드는 큰 결실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2013년 11월

내장산사무소장 **서 윤 석**

자연, 우리의 미래! 국립공원

● 국립공원이란...

국가를 대표하는 자연생태계와 자연 및 문화 경관지역을 국가가 지정, 관리하고 국민의 휴양 및 정서 함양을 목적으로 지속가능한 이용을 도모하는 곳이다.

국립공원은 후손에게 물려줄 중요한 가치뿐만 아니라 멸종위기에 놓인 동 식물의 소중한 보금자리가 되고 있다.

1967년 12월 29일 지리산 국립공원을 우리나라 최초의 국립공원으로 지정하였으며 현재까지 21곳이 국립공원으로 지정되어 보호 받고 있다.



● 국립공원관리공단은...

국립공원관리공단은 아름다운 국립공원을 보전하고 전문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1987년 7월 1일에 처음 설립되었습니다.

- 1987. 07. 01 국립공원관리공단 설립(건설부 산하)
- 1991. 04. 23 국립공원관리공단 건설부에서 내무부로 이관
- 1998. 02. 28 국립공원관리공단 내무부에서 환경부로 이관
- 2013. 현재 환경부 산하 국립공원관리공단

국립공원
KOREA NATIONAL PARK






사계절이 아름다운 내장산 국립공원

■ 내장산국립공원 소개하기

- 지정 : 1971년 11월 17일 국립공원 제 8호로 지정

■ 행정구역과 면적

- 전북 정읍시, 순창군, 전남 장성군
- 80.70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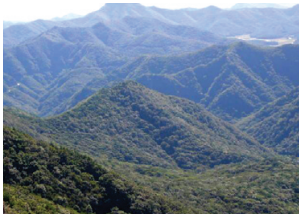
■ 내장산 이름의 유래

- 첫 번째 이야기
  - 內藏山 – 안 내(內), 감출 장(藏) 산 안에 감춰진 것이 무궁무진하다.
- 두 번째 이야기
  - 내장산의 아름다운 단풍을 구경하기 위해 많은 인파가 몰려와도 계곡 속에 들어가면 어디에 그 많은 인파가 있는지 잘 모이지 않아 구불구불한 양의 내장과 같다 하여 내장(內藏)산이라고 불리게 되었다고 전해내려 온다.



내장산의 자연경관

내장산의 산봉우리



■ 월영봉(月迎峰, 427m)

옛 사람들이 추령에 보름달이 뜨면 달맞이 하는 곳이라 하여 월영봉이라 합니다.



■ 서래봉(西來峰, 624m)

내장산의 대표 봉우리로 논과 밭을 고르는 옛 농기구인 '써레'를 닮았다고 하여 '써래봉'이라 불리다가 '서래봉'으로 되었습니다.



■ 불출봉(佛出峰, 622m)

부처가 수행 중 쉬어갔다는 전설이 전해지며, 정상에서의 조망이 장관이라고 하여 「불출운하」라고도 합니다.



■ 망해봉(望海峰, 679m)

내장산 안쪽으로 먹뱀이골이 잘 보이며 바깥쪽으로는 용산저수지와 호남평야는 물론, 맑은날이면 정상에서 서해를 조망할 수 있습니다.



■ 연지봉(蓮地峰, 670m)

불출봉에서 서남쪽으로 솟아오른 봉우리로서 이곳에서 발원하는 원적계곡물이 서래봉을 지나 내장호를 이루며 동진강 줄기의 근원이 됩니다.



■ 까치봉(717m)

내장산 중심부에 2개의 암봉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백암산을 연결하는 주봉이기도 하고 봉우리의 형상이 까치가 날개를 펴고 있는 모습과 같다 합니다.



■ 신선봉(神仙峰, 763m)

내장산의 최고봉으로 내장 9봉을 한 눈에 조망할 수 있습니다. 전설에 의하면 신선이 하늘에서 내려와 금선대에서 바둑을 두고 있었으나 그 모습은 잘 보이지 아니하였다합니다.



■ 연자봉(燕子峰, 675m)

이 곳에 제비 명당이 있다하여 연자봉이라고 하고 산봉우리가 붓끝과 같다 하여 일명 '문필봉'이라고도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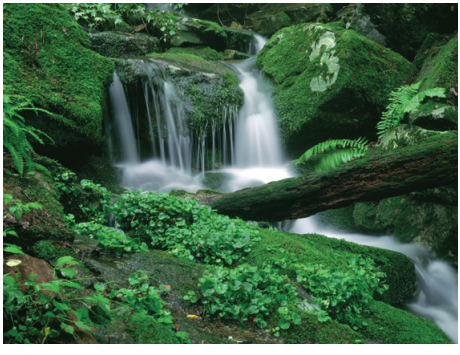


■ 장군봉(將軍峰, 696m)

임진왜란과 정유재란 당시 승병대장 희묵대사가 활약했다고 전해지는 험준한 봉우리입니다.

내장산의 계곡

■ 금선계곡



신선봉과 까치봉에서 발원하여 내장사의 왼편으로 흐르는 연장 2.2km의 계곡으로 뛰어난 비단으로 수를 놓은 듯 해서 '금선계곡'이라 불리 웁니다.

■ 원적계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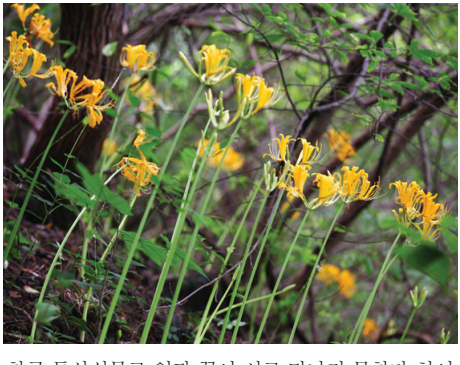


연지봉에서 발원하여 내장사의 오른편으로 흐르는 연장 3.2km의 계곡으로 일명 먹뱀이골로 불리웁니다.

내장산의 깃대종

깃대종은 특정지역의 생태, 지리, 문화적 특성을 반영하는 상징적인 야생 동·식물로서 사람들이 보호해야 할 필요성을 인정하는 종을 말합니다.

■ 진노랑상사화(멸종위기야생동·식물 2급)



한국 특산식물로 잎과 꽃이 서로 만나지 못한다 하여 '상사화'라는 이름을 지녔습니다.
잎은 2월말~5월까지 보이고 꽃대는 7월말~8월초에 올라오며 꽃은 진한 노란색입니다.

■ 비단벌레(멸종위기야생동·식물 2급)



몸길이 25~40mm로 화려한 광택이 있고 머리의 중앙은 오목하며, 겹눈은 암갈색입니다.
성충은 7월~9월에 볼 수 있으며 애벌레는 썩은 팽나무나 느티나무 속에서 생활합니다.

내장산의 문화유적



■ 내장사(內藏寺, 영은사지) – 지방기념물 제 63호
내장사는 백제 무왕 37년 영은조사가 현재의 부도전 일대에 50여동의 대가람을 세우고 영은사라 칭하였습니다.



■ 조선동종 – 지방유형문화재 제 49호
조선영조 44년(1768년)에 제작된 높이 80cm,종신의 높이 60cm, 구경 50cm의 소형 범종



■ 벽련암(壁蓮菴, 내장사지) – 지방기념물 제 73호
서래봉중턱 330m고지에 위치하며, 백제 의자왕 20년 환해선사가 창건



■ 원적암(圓寂菴)
불출봉 아래에 자리잡고 있으며, 고려선종 3년 적암대사가 창건하였다하는데 연혁이 분명치 않습니다.



■ 용굴암지(龍窟菴地), 조선왕조실록이안사적비
1592년 임진왜란 당시 전주사고의 조선왕조실록과 경기전의 태조영정을 이안시켜 370여일 동안 보전한 곳으로 역사적인 의미가 깊습니다.

내장산 자연이야기를 만날 수 있는 곳 - 첫번째

■ 원적골자연관찰로



원적골 자연관찰로

원적골의 동·식물에 대한 이해와 다양한 숲 체험 프로그램이
준비되어 있으며, 내장산의 문화·역사를 체험할 수 있는 코스

○ 구간 : 탐방안내소 → 내장사 → 원적계곡 → 비자나무 군락지 → 사랑의 다리 → 탐방안내소
○ 거리 : 3.6km ○ 소요시간 : 1시간 20분

■ 코스 스토리텔링

깊은 산속, 나무들 사이로 손을 내밀면 따스한 봄 햇살이 굼실거립니다.
신록으로 우거진 숲 풀들 사이로 맑은 계곡과 손대지 않은 원시의 자연이 그대로 우리를 맞이하고, 천년 고찰의 역사를 간직한 원적암은 작지만 소박한 멋을 담아냅니다.
크고 작은 돌들이 뒤엉켜 억겁의 세월을 버텨온 길게 널어진 너덜겅 돌길 위를 '딸각...딸각...' 산 그림자가 이끄는 대로 따르다보면 청명한 하늘아래, 고즈넉한 벽련암과 단풍의 오색빛깔로 옷을 갈아입은 위풍당당 서래봉 풍경이 발길을 사로잡고, 벽련암 돌담길 위로 소복이 쌓인 백설 위 선연한 풍경소리가 눈 구슬 바람에 휘날립니다.

내장산 자연이야기를 만날 수 있는 곳 – 두번째

■ 자연사랑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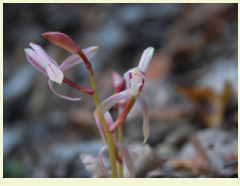
■ 코스 스토리텔링

흙길의 자연을 벗 삼아 걷는 길목에 드리워진 유록색 향연의 진풍경은 장막을 드리워 놓은 듯한 쾌청한 내장천계곡과 어우러져 청량감을 더합니다.
산내음에 취해 자연속에 새겨진 시를 읽으며 싱그러운 숲길을 걷다보면 어느덧, 다람쥐가 길동무가 되고, 새소리는 아름다운 음악이 됩니다.
연두색, 녹색, 노란색, 붉은색... 계절별 자랑하듯 다양한 색을 내는 단풍나무잎과 하늘풍경은 우화정 호수의 반영에 한 폭의 수채화를 그려 놓고, 우리네는 속세의 소란한 마음을 108그루 단풍나무 아래 내려놓습니다.

Content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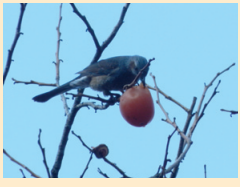
첫 번째 이야기 – 내장산에서 만나는 식물들

봄 13p ~ 61p
여름 62p ~ 94p
가을 95p ~ 98p



두 번째 이야기 – 내장산에서 만나는 동물들

포유류 100p ~ 106p
조류 107p ~ 123p
양서 파충류 124p ~ 133p
곤충 134p ~ 161p



세 번째 이야기 – 내장산에서 만나는 버섯

버섯 163p ~ 183p





첫 번째 이야기

내장산에서 만나는 식물들



봄 여름 가을

내장산의 봄

붉은색

족도리풀	노루귀
현호색	자주괴불주머니
제비꽃	큰구슬붕이
내장금창초	벌깨덩굴
광대나물	얼레지
각시붓꽃	약난초
백양더부살이	참꽃마리
닥나무	으름덩굴
복분자딸기	박태기나무
굴거리나무	단풍나무
진달래	갯버들

노란색

복수초	애기똥풀
산괴불주머니	애기괭이눈
뱀딸기	양지꽃
괭이밥	붉은대극
중의무릇	윤판나물
금난초	매미꽃
노랑붓꽃	까치박달
졸참나무	겨우살이
생강나무	까마귀밥여름나무
상산	산수유나무
개나리	병꽃나무
굴피나무	

흰색

나도물통이	개별꽃
개구리발톱	만주바람꽃
변산바람꽃	너도바람꽃
백작약	큰괭이밥
산자고	돌단풍
국수나무	찔레꽃
산벚나무	아까시나무
고추나무	박쥐나무
산딸나무	층층나무
곰의말채	때죽나무
쥐똥나무	덜꿩나무
매실나무	

녹색

석창포	천남성
둥글레	삿갓나물
보춘화	
비자나무	삼나무
화살나무	참회나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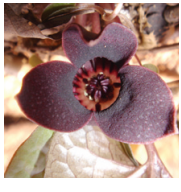


돌단풍

족도리풀(*Asarum sieboldii Miq*)

• *개화시기 : 4~5 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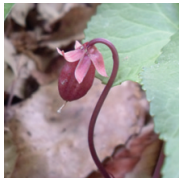
꽃

꽃은 자줏빛으로 끝이 3 갈래 갈라지고 항아리 모양을 하며 잎 사이에서 올라오기 때문에 잎을 보고 쌓여 있는 낙엽을 들어내면 속에 꽃이 숨어 있습니다.



잎

잎은 폭이 5~10㎝이고 줄기 끝에서 2장이 나며 표면은 녹색이고 뒷면은 잔털이 많으며 줄기는 자줏빛을 띱니다.



열매

족도리풀의 열매는 8~9 월 경에 두툼하고 둥글게 달리며 색은 자주색을 띱니다.

stoRy 족도리풀의 전설

경기도 포천 지방에 아주 예쁜 소녀가 있었어요~ 그녀의 아름다움이 꽃과 같다하여 꽃 아가씨라 불렸습니다. 꽃 아가씨는 산나물을 캐고 꽃나무를 심으며 생활했는데, 궁녀로 뽑혀가 시집도 못가고 궁에서 생활하던 중 다시 중국으로 팔려가고 말았어요!

머나먼 중국 땅으로 팔려가 들판에 굴러다니는 풀과 같은 인생을 겪고 세월이 흘러 할머니가 되어서도 고향으로 돌아오지 못하고 중국 땅에서 죽고 말았어요! 그러는 동안 그녀의 어머니도 죽음을 맞이했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모녀가 죽은 뒤 그 집 뒷마당에 풀들이 자라기 시작했는데 그 풀의 꽃은 마치 처녀가 시집갈 때 쓰는 족도리 같은 모양이었다고 해요~^^

관찰포인트를 알아볼까요 ^^

족도리풀은 금선계곡과 원적골자연관찰로에서 쉽게 관찰할 수 있어요~

특히 원적골자연관찰로에 많이 자생하고 있답니다. 하지만 족도리풀의 꽃을 관찰하려면 자세를 많이 낮춰야만 예쁜 자주색의 꽃을 관찰할 수 있어요!

노루귀(*Hepatica asiatica*)

• *개화시기 : 4~5 월*



stoRy 노루의 귀를 닮은 노루귀

노루귀는 잎이 깔때기 모양으로 말려서 나온 모습이 마치 노루의 귀를 닮았다 하여 노루귀라는 정겨운 이름이 붙었습니다.
봄소식을 알리는 듯 눈을 헤치고 나와 작은 꽃을 내민다 하여 파설초(破雪草), 설할초(雪割草)라고도 합니다.
노루귀의 꽃 색깔은 아무도 따라올 수 없을 만큼 다양합니다. 흰색, 분홍색, 보라색으로 색이 표현되지만 자연 상태의 노루귀 꽃은 연분홍색, 진분홍색, 남색을 띠기도 하며 줄무늬가 있는 꽃잎, 꽃잎의 가장자리에 흰색 테두리가 둘러져 있는 것 등 참으로 다양하고 아름답답니다.

*관찰포인트를 알아볼까요 ^^*

노루귀는 자연사랑길, 금선계곡, 원적골자연관찰로에서 관찰할 수 있어요!
분홍색과 흰색으로 어우러진 노루귀는 정말 예쁘답니다. 하지만 만지진 마세요!
꽃잎이 약해 만지면 쉽게 꽃이 부서져 버린답니다.

꽃

4 월에 흰색 또는 연한 붉은색 꽃이 피는데 잎보다 먼저 긴 꽃대 위에 1개씩 붙습니다.
꽃잎은 없고, 꽃잎 모양의 꽃받침이 6 ~ 8 개 있습니다.



잎

잎은 뿌리에서 뭉쳐나고 긴 잎자루가 있으며 3 개로 갈라집니다. 갈라진 잎은 달걀 모양이고 끝이 뭉뚝하며 뒷면에 솜털이 많이 납니다.



열매

열매는 수과로서 털이 나며, 6월에 총포에 싸여 익습니다.
꽃이 피고 나면 잎이 나오기 시작하는데, 그 모습이 마치 노루의 귀를 닮았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입니다.



현호색(*Corydalis remota*)

• *개화시기 : 4~5 월*





꽃

꽃은 연한 홍자색이며 길이는 약 2.5㎝ 정도 되고 5~10 개가 원줄기 끝에 뭉쳐서 달립니다. 화관은 길이 2.5cm 정도이고 뒤쪽은 꿀주머니로 되며 앞쪽은 넓게 퍼져 있습니다.



잎

잎은 어긋나고 잎자루가 길며 1~2 회 3 개씩 갈라집니다. 갈래 조각은 도란형이고 윗부분이 깊게 또는 결각상으로 갈라지며 가장자리에 톱니가 있고 뒷면은 분백색입니다.



열매

열매는 6~7 월경에 길이가 2㎝, 폭이 0.3㎝ 정도로 달리고 종자는 광택이 나고 흑색이다.

stoRy 종달새를 닮아 하늘을 날고픈 현호색

내장산에 봄이 오면 수많은 종달새들이 목청 높여 자태를 뽐내며 지저귑니다.
아주 가까이 다가가 손위에 올려놓아도 날아갈 줄 모르고 그저 스스로의 아름다운 자태에 도취해 한껏 뽐내기만 하는, 아름다운 새를 꼭 닮은 야생화 현호색!
그 옛날에는 너무나 아름다워 양귀비라고 부르기까지 했었답니다.
현호색은 산 끝자락, 야트막한 골짜기양옆, 얕은 계곡 바위틈새, 마치 새들이 먹이를 조는 듯 와락 모여 있습니다.
청자빛 인가하면, 자주색빛이 돌고, 연붉은색인가 하면, 연보라빛 색도 있으며 비취색도 볼 수 있답니다.

*관찰포인트를 알아볼까요 ^^*

현호색은 내장산에서 매우 흔한 야생화 중 하나입니다. 모든 탐방로에서 다양한 색의 현호색을 관찰할 수 있어요!
모두 현호색이긴 하지만 잎의 모양이 모두 달라 잎의 모양도 함께 관찰한다면 더욱 재미있답니다.

자주괴불주머니 *(Corydalis incisa)*

• *개화시기 : 4~5 월*



story 주머니를 닮은 자주괴불주머니

이 꽃의 이름은 자주괴불주머니예요.
이름이 특이하죠?
괴물주머니라는 뜻에서 지어진 이름은 아니고, 한복을 장식하는 노리개의 순우리말이 괴불주머니인데 그것과 비슷한 모양이라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에요.
괴불이란 오래된 연(蓮)뿌리에 서식하는 열매로 귀신을 물리치는 벽사를 의미하고 있어, 옛날 사람들은 오색의 비단 헝겊을 이용하여 여러 모양의 수를 놓아 만든 노리개인 괴불주머니를 주머니 끈 끝에 차고 다녔어요!
그 주머니와 닮은 형태로 자주색 꽃을 피운다하여 자주괴불주머니라고 이름 붙여졌답니다.

*관찰포인트를 알아볼까요 ^^*

자주괴불주머니는 매우 흔합니다.
내장산의 모든 탐방로에서 관찰할 수 있어요! 자주괴불주머니를 모르는 사람은 현호색으로 착각할 수 있지만 자세히 보면 꽃의 모양과 잎의 모양이 많이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

꽃

꽃은 4~5 월에 자주색으로 피고 총상으로 달리며 밑에 꼴주머니가 있고 한쪽은 입술 모양으로 퍼집니다. 수술은 6 개가 3 개씩 2 개로 갈라집니다.



잎

나온 잎은 잎자루가 길고 작은 잎이 3 장씩 2 번 나오며 작은 잎은 3 장씩 나온 잎과 비슷합니다.



열매

열매는 삭과로서 6 월에 익는데, 편평한 긴 타원형이며 검은 종자가 들어 있습니다.



제비꽃(*Viola mandshurica*)

• *개화시기 : 4~5 월*

story 제비가 강남 갔다 오는 봄에 피는 꽃

혹시 제비꽃을 못 본 친구가 있나요?
제비꽃은 시골은 물론 도시에서도 쉽게 볼 수 있어요!
제비꽃은 제비가 강남 갔다 오는 봄에 핀다 해서 이런 이름이 붙었어요~ 제비꽃은 갈고리처럼 생긴 꿀샘이 아주 깊어요! 그 꿀샘을 서로 어긋나게 걸어 잡아당기면 약한 꽃이 먼저 떨어지는데, 이 놀이를 꽃 씨름이라고 합니다.



꽃	자주색 꽃이 옆을 향해 핀다.
잎	세모진 달걀형
열매	열매는 익으면 3 쪽으로 갈라진다.
특징	제비가 올 때쯤 피어서 제비꽃

관찰포인트를 알아볼까요 ^^

제비꽃은 내장산 어느 탐방로에서든 관찰할 수 있는 야생화입니다.
다양한 색을 가지고 있고 우리가 관찰로를 거닐며 고개만 돌려도 제비꽃은 우리를 반겨줄거예요 ^^

내장금창초(*Ajuga decumbens var. rosa*)

• *개화시기 : 4~6 월*

story 내장산에서 처음 발견 된 내장금창초

내장금란초라고도 불리며 꽃은 분홍색입니다. 일반 금창초는 보라색을 띄지만 내장금창초는 분홍색을 띄고 있으니 구별할 수 있겠죠?? 내장산에서 처음 발견되어 내장금창초라고 불리며 남부지방 산과 들에 자생한답니다. 윗부분의 잎은 마주나고 긴 타원형 또는 달걀모양이에요 ^^



꽃	잎겨드랑이에 여러 개의 분홍색 꽃이 난다.
잎	줄기와 잎에는 많은 털이 있다.
열매	8~10 월경에 달리고 그물 모양의 무늬
특징	잎, 줄기, 꽃, 뿌리 전체가 약용

관찰포인트를 알아볼까요 ^^

내장금창초는 자주색의 금창초와 함께 삼청공원과 원적골 자연관찰로에서 관찰할 수 있어요~
워낙 꽃이 바닥에 가까워서 주의를 기울이지 않으면 밟을지도 몰라요~!
꽃을 관찰하기 위해선 몸을 많이 낮춰야 한답니다.

큰구슬붕이(*Gentiana zollingeri*)

• *개화시기 : 5~6 월*



story 강인한 생명력을 가진 꽃, 큰구슬붕이

구슬붕이의 이름의 유래는 가을에 열매가 맺히면 작은 구슬들을 함박 담고 있는 봉의 모양을 하고 있어 유래가 됐다는 설과, 봄에 꽃이 피면 앙증맞은 꽃들이 바닥에 보석 구슬처럼 깔려 있어 그런 이름으로 불리게 되었다고 하나, 이는 1940년대에 정리된 내용들이라 그 이전의 유래는 확인할 길을 없어요.

우리나라가 원산지인 구슬붕이는 우리 민족과 함께 우리의 땅에서 유구한 세월 동안 함께 살아온 강인한 생명력을 가진 빛 고운 야생화에요.

*관찰포인트를 알아볼까요 ^^*

큰구슬붕이는 금선계곡과 원적골 자연관찰로에서 관찰할 수 있어요!

꽃이 매우 작은 편에 속해서 그냥 지나칠지도 모르니 눈을 크게 뜨고 큰구슬붕이를 찾아보세요^^

꽃	꽃은 자주색으로 핀다.
잎	잎은 가장자리가 두껍다.
열매	8~9월에 열린다.
특징	구슬붕이와 비슷하다.

벌깨덩굴(*Meehania urticifolia*)

• *개화시기 : 5 월*



story 여름 모양식 메기입을 빼닮은 벌깨덩굴

벌깨덩굴은 높고 낮은 산을 가리지 않고 깊고 청아한 숲속에서 어렵지 않게 발견되며 다가서면 물에서 살아가는 메기가 입을 크게 벌리고 혀를 쭉 내밀고 있는 모습이에요~

여름철이 다가오면서 야생화 흔적들이 차츰 자취를 감추어가고 있을 시간, 큰 꽃송이로 녹색의 풀 속에서 눈에 잘 띄는 색상으로 피어나 우리들 시선을 사로잡는 답니다.

*관찰포인트를 알아볼까요 ^^*

벌깨덩굴은 높고 낮은 산을 가리지 않고 깊고 청아한 숲속에서 어렵지 않게 발견되며 다가서면 물에서 살아가는 메기가 입을 크게 벌리고 혀를 쭉 내밀고 있는 모습이에요~

여름철이 다가오면서 야생화 흔적들이 차츰 자취를 감추어가고 있을 시간, 큰 꽃송이로 녹색의 풀 속에서 눈에 잘 띄는 색상으로 피어나 우리들 시선을 사로잡는 답니다.

꽃	꽃은 보라색, 꽃은 큰 입술모양
잎	잎은 신장형, 약간 세모진다.
열매	7~8월경에 계란 모양
특징	어린잎은 식용

광대나물(*Lamium amplexicaule*)

• *개화시기 : 4~5 월*

stoRy 춤을 추는 광대, 광대나물

광대나물은 기다란 통부리 꽃을 찬찬히 들여다보면, 어릿광대가 털옷에 털모자까지 쓰고 두 손을 앞으로 모으고 춤을 추는 모습이에요~
그럼 광대나물은 왜 광대나물일까요? 광대나물은 꽃 모양이 마치 춤을 추는 광대 같다 해서 광대나물이에요~
또 꽃을 받치고 있는 이파리가 광대 옷의 목둘레 장식을 닮았다 해서 광대나물이라고도 합니다.



꽃	꽃은 분홍색, 기다란 원통형
잎	잎은 마주난다.
열매	7~8 월경 달걀모양
특징	어린순을 나물로 먹는다.

*관찰포인트를 알아볼까요 ^^*

광대나물은 자연사랑길과 삼청공원에서 관찰할 수 있어요! 분홍색의 꽃이 입술모양으로 피어 매우 예쁘답니다. 간혹 흰색의 광대나물도 있으니 흰색의 광대나물을 찾아보는 것도 재미있을거에요^^

얼레지(*Erythronium japonicum*)

• *개화시기 : 4~5 월*

stoRy 개미와 얼레지의 관계

얼레지는 꽃이 진 뒤에 씨가 맺히는데, 특이하게도 얼레지 씨에서는 개미 유충과 똑같은 냄새가 나요. 그래서 개미가 자기 새끼를 데려가듯이 열심히 얼레지 씨를 땅속 개미집으로 가져가는 모습을 종종 볼 수 있습니다. 덕분에 얼레지 씨는 발아하기 쉬운 땅속 깊숙이까지 이동하게 되는 것이지요.
얼레지가 비교적 좁은 범위에 빽빽이 자라는 것은 이처럼 개미의 이동 거리와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꽃	홍자색 꽃이 밑을 보고 핀다.
잎	잎 표면에 자주색 얼룩무늬
열매	타원형의 열매는 3 줄로 골이 팬다.
특징	6 장의 꽃잎 밑 부분에 W 무늬

*관찰포인트를 알아볼까요 ^^*

내장산에서 얼레지를 관찰하려면 탐방로가 아닌 곳으로 가야해요!
계곡 근처에서 피는 얼레지는 어두울 때에는 꽃을 피우지 않고 밝을 때에 꽃이 활짝 핀답니다.
우리가 내장산에서 얼레지를 관찰하긴 어렵답니다.

약난초(*Cremastra appendiculata*)

• *개화시기 : 5~6 월*



꽃

자갈색 꽃이 한 쪽으로 치우쳐서 밑을 향해 피고 꽃줄기에는 잎집 같은 입이 달린다.



잎

긴 타원형 잎은 겨울이 지나면 마르는데, 끝이 뾰족하고 밑 부분이 좁아져서 입자루와 연결된다.



열매

열매는 삭과이고 길이 2~25.cm 의 긴 타원 모양이다.



*관찰포인트를 알아볼까요 ^^*

약난초는 삼청공원과 원적골자연관찰로에서 관찰할 수 있어요! 꽃이 홍갈색으로 여러 개가 모여 피어 있어서 매우 아름답습니다.
하지만 탐방로 근처에는 없기 때문에 쉽게 관찰하기 어렵고 특히 내장산국립공원 특정식물이므로 조심해야 해요 ^^

stoRy 바람의 속살을 닮은 난초

바람의 속살을 닮은 난초라는 표현을 누가 처음으로 사용했을까요?
'어떻게 그런 표현을'이라는 감탄사가 저절로 나오게 됩니다. 바로 약난초에요. 아마 한방에서 약용으로 널리 사용했었다는 뜻이겠지요. 그렇다면 과거에는 깊은 숲 속 어딘가에서 제법 흔하게 만날 수 있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 점차 사라지기 시작해서 지금은 쉽게 만날 수 없는 희귀식물이 되어버렸습니다.

백양더부살이 *(Orobanche filicicola)*

멸종위기야생동 · 식물 2급

• *개화시기 : 5~6월*

stoRy 쑥에 기생하며 살아가는 백양더부살이

백양더부살이는 세계적으로 희귀종이며, 우리나라에만 자생하고 있는 멸종위기식물이에요!
백양사 근처에서 처음으로 발견되었고, 쑥 뿌리에 자신의 뿌리를 내려 쑥의 양분을 빼앗아 먹고 사는 기생식물이어서 백양더부살이라고 부른답니다. 또한 푸른 잎이 전혀 없어서 광합성을 하지 못하는 완전한 기생식물이에요~



꽃	보라색 바탕에 흰줄무늬
잎	길쭉한 삼각형의 모양
열매	6월경 갈색으로 달림
특징	쑥에 기생

*관찰포인트를 알아볼까요 ^^*

백양더부살이는 내장산국립공원의 근처에서 발견할 수 있어요~
하지만 멸종위기종인 백양더부살이는 눈으로만 관찰해야 한답니다.

참꽃마리 *(Trigonotis nakaii)*

• *개화시기 : 4~6월*

stoRy 연한 하늘색 꽃이 아름다운 참꽃마리

'꽃'은 풀꽃 아닌 다른 어떤 말에 쓰여도 예쁘죠? 꽃동산, 꽃미남 등 붙이기만 하면 예쁜 느낌이 살아나요~
'꽃마리'는 꽃이름도 무척 예뻐요~ '꽃마리'는 꽃이 피기 전에 꽃줄기가 달팽이 모양으로 도르르 말리는 것을 보고 지은 이름입니다. '참꽃마리'는 꽃마리처럼 말려 있지는 않은데, 연하늘색 꽃이 이름처럼 예쁘답니다.



꽃	연보라색 또는 연분홍색
잎	달걀형의 뿌리잎
열매	분과로 9월에 익음
특징	우리나라 특산종

*관찰포인트를 알아볼까요 ^^*

내장산국립공원의 자연사랑길, 삼청공원, 원적골자연관찰로의 모든 탐방로에서 쉽게 관찰할 수 있어요~
꽃마리와 비슷하지만 꽃마리보단 꽃의 크기가 훨씬 크답니다.

닥나무(*Lamium amplexicaule*)

• *개화시기 : 4 월*



story 한지를 만드는데 쓰이는 닥나무

한국 사람은 닥나무로 종이를 만드는 것을 알고, 이집트 사람은 파피루스(papyrus)가 종이의 어원(語源)임을 알며, 중국 사람은 종이를 발명한 역사를 알고 있다고 해요~

'닥나무'하면 우선 종이를 떠올리게 됩니다.

특히 전주지역은 닥나무로 만든 한지와 닥나무 주산지로 유명하답니다.

*관찰포인트를 알아볼까요 ^^*

닥나무는 자연사랑길과 원적골자연관찰로에서 관찰할 수 있어요!

암꽃과 수꽃의 모양이 달라서 마치 둘 다 꽃이 아닌 것 같답니다.

6 월에 열리는 열매는 마치 산딸기와 비슷한 모양을 하고 있어요^^

꽃	암수한그루, 꽃이삭은 둥그스름
잎	어긋나고 달걀형
열매	둥근 열매는 주홍색으로 익는다.
특징	질긴 나무껍질은 한지의 재료

으름덩굴(*Akebia guinata*)

• *개화시기 : 4~5 월*



story 얼음과일이라 불리는 으름덩굴

소시지 모양의 열매인 으름은 가을에 익으면 배가 갈라지면서 속에 있는 열매살이 드러나는데 열매살의 모양은 껍질을 벗긴 바나나 모양과 비슷하고 맛도 비슷해요~

하얀 열매살을 입에 넣으면 차가운 느낌이 들어서 아이들이 으름덩굴의 열매를 '얼음과일'이라고 하던 것이 변해서 '으름이 되었다는 글이 있는데 재미있는 풀입니다.

*관찰포인트를 알아볼까요 ^^*

으름덩굴은 삼청공원과 입암지킴터~장성새재 구간에서 쉽게 관찰할 수 있어요!

으름덩굴은 꽃도 예쁘지만 열매가 더 유명하죠^^

하지만 열매가 맛있다고 따면 안돼요!

꽃	암꽃이 수꽃보다 더 크다.
잎	작은잎은 거꾸로 된 달걀형
열매	소시지 모양의 열매
특징	열매는 흰색 속살을 먹는다.

복분자딸기 (*Ruvus coreanus*)

• *개화시기 : 5~6 월*

stoRy 복분자를 먹으면 요강이 뒤집어진다?
옛날 신혼부부가 있었는데 남편이 이웃마을에 볼일을 보고 돌아오다가 길을 잃게 되어 배가 고파 우연히 덜 익은 산딸기를 먹게 되었어요. 시지만 너무 배가 고파 허겁지겁 먹고는 겨우 집으로 돌아왔어요. 다음날 아침 일어나서 소변을 보러 화장실에 갔는데 소변줄기가 너무 힘이 세어 오줌항아리가 뒤집어지고 말았답니다. 그래서 '뒤집어진다'는 뜻의 '복(覆)'과 '항아리'인 '분(盆)'을 합해 '복분자(覆盆子)'라는 이름이 생겼다고 해요~



꽃 가지 끝에 산방꽃차례로 모여핀다.
잎 어긋나고 잎자루에 가시가 있다.
열매 딸기 열매는 붉은색으로 익는다.
특징 한방에서 약재로 사용

관찰포인트를 알아볼까요 ^^
복분자딸기는 서래탐방지원센터 근처와 삼청공원의 계곡 부근에서 관찰할 수 있어요!
가시가 있어서 가까이 다가가면 다칠 수도 있으니 조심해야 하고, 특히 열매가 몸에 좋다고 따서 먹으면 안돼요^^

진달래 (*Rhododendron mucronulatum*)

• *개화시기 : 4~5 월*

stoRy '진달래꽃' 김소월
나보기가 역겨워 가실 때에는 말없이 고이 보내 드리오리다.
寧邊 (영변)의 藥山(약산) 진달래 아름 따다 가실 길에 뿌리오리다.
가시는 걸음걸음 놓인 그 꽃을 사뿐히 즈려밟고 가시옵소서.



꽃 꽃은 깔때기 모양
잎 잎 앞면은 비늘조각이 약간 있다.
열매 열매는 원통 모양
특징 꽃을 따 먹을 수 있다.

관찰포인트를 알아볼까요 ^^
진달래는 원적골자연관찰로에서 쉽게 관찰할 수 있어요!
진달래와 철쭉을 헷갈릴 수도 있지만 진달래와 철쭉은 꽃이 피는 시기가 다르답니다.^^

박태기나무(*Ccrcis chinensis*)

• *개화시기 : 4 월*



stoRy 밥티기를 닮은 박태기나무 꽃

밥알 모양과 비슷한 꽃이 피기 때문에 박태기라 하는데, 일부 지방에서는 밥티나무라고도 합니다. 북한에서는 꽃봉오리가 구슬 같다 하여 구슬꽃나무라 하고 그리스말로는 Cercis, 즉 칼처럼 생긴 꼬투리가 달린다 해서 칼집나무라고 부르기도 해요.

또한 예수를 배반한 유다가 이 나무에 목매어 죽은 나무라고 하여 유다 나무라고도 한답니다.

박태기나무는 원래 중국이 원산지이며 추위에도 잘 견디고 햇빛이 잘 드는 곳을 좋아하고 박토에서도 잘 자랍니다.

*관찰포인트를 알아볼까요 ^^*

박태기나무는 자연사랑길에서 관찰할 수 있어요! 원래 내장산국립공원에서 자생하는 나무는 아니지만 홍자색으로 핀 꽃은 자연사랑길을 한껏 아름다운 길로 만들어 주고 있답니다.

꽃

잎보다 먼저 피는데 나비 모양의 홍자색 꽃이 7~30 개씩 한군데 모여 달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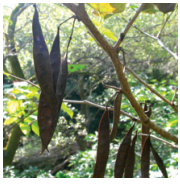
잎

잎은 어긋나고 심장형이며 끝이 뾰족하고 가장자리가 밋밋하다. 잎 앞면은 광택이 있고 뒷면 잎맥 기부에 털이 있다.



열매

6 월에 열리는 기다란 꼬투리 열매 속에 들어 있는 씨는 편평한 타원형이다.



굴거리나무(*Daphniphyllum macropodum*)

• *개화시기 : 5~6 월*





꽃

수꽃은 8~10 개의 수술이 있고 암꽃은 약간 둥근 씨방에 2 개의 암술대가 있으며 씨방 밑에 퇴화된 수술이 있다.



잎

가지 끝에 촘촘히 어긋나는 잎은 긴 타원형으로 끝이 뾰족하며 가장자리가 밋밋하다.
잎 뒷면은 회백색이며 털이 없다.



열매

긴 타원형의 핵과열매는 검은 자주색으로 익으며, 겉에 흰 가루가 있고 속에 타원형 씨가 1 개씩 들어 있다.

stoRy 내장산에서 특별한 의미가 있는 나무

한겨울에도 푸르름을 유지하는 굴거리나무는 상록식물입니다.
굴거리나무는 원래 따뜻한 곳을 좋아하는 나무인데 내장산이 굴거리나무가 서식할 수 있는 내륙북방한계선입니다.
그래서 내장산에 있는 굴거리나무군락지는 천연기념물 91 호로 지정되어 있어요!
어린 가지는 붉은색을 띄고, 자라면서 초록빛으로 변하는 것이 특징인데요, 약재로 쓰이는 만병초와 매우 흡사한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관찰포인트를 알아볼까요 ^^*

케이블카를 타고 오르면 천연기념물 91 호인 굴거리나무군락지를 만날 수 있어요!
약 10,000 여그루의 굴거리나무가 자생하는 군락지는 학술적인 가치가 뛰어나고 굴거리나무를 가까이서 관찰할 수 있는 곳입니다.

단풍나무(*Acer palmatum*)

• *개화시기 : 5월*



story 가을 단풍의 대명사, 단풍나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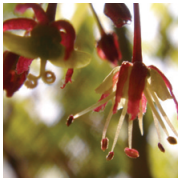
가을이 되면 많은 사람들이 아름답게 물든 단풍 구경을 떠나는데 가장 흔히 만나는 나무가 손바닥 모양의 잎을 가진 단풍나무에요.
단풍잎은 가을에 기온이 낮아지면 초록색 엽록소를 더 이상 만들어지지 않고 빨간 색 색소가 새로 생겨나기 때문에 붉은 색으로 물이 든답니다.
단풍나무 종류에는 단풍나무 뿐만 아니라 신나무, 복자기, 고로쇠 등 여러 종류가 있지요.
제각 다른 꽃 모양과 잎 모양을 가지고 있으며 단풍드는 색도 다르답니다.
내장산국립공원에는 위의 단풍나무들과 함께 아기단풍, 내장단풍 등 총 11종의 단풍나무가 어우러져 있기 때문에 아름다운 단풍으로 아주 유명하지요.

*관찰포인트를 알아볼까요 ^^*

내장산국립공원에서 가장 유명한 나무는 단풍나무에요~ 어느 탐방로에서든 단풍나무를 쉽게 관찰할 수 있답니다. 단풍나무 뿐만 아니라 당단풍, 고로쇠나무, 신나무, 복자기나무 등도 관찰할 수 있어요^^

꽃

가지 끝의 산방꽃차례는 털이 없고 아래로 처지면 10~20개의 자잘한 꽃이 모여 핀다.
꽃받침조각과 꽃잎은 각 각 5개이고 수술은 8개이며, 암술머리는 2개로 갈라진다.



잎

잎은 마주나고 잎몸은 가장자리가 5~7개로 갈라진다. 갈래조각은 서로 겹쳐지지 않고 끝이 길게 뾰족하며 가장자리에 겹톱니가 있다.



열매

긴 타원형의 날개를 가진 열매는 2개가 마주 붙는데 두 날개는 거의 수평으로 벌어진다.



갯버들(*Salix gracilistyla*)

• *개화시기 : 4 월*

stoRy 버들강아지 눈 떴다!!

버드나무과에 속하는 갯버들을 흔히 '버들개지', '버들강아지' 라고 불러요~ 강가나 개울가의 물기가 많은 곳에서 자라니 '갯버들' 이라고 이름 지은 것은 쉽게 이해가 됩니다.
'버들강아지'는..? 아마도 보송보송한 털로 봄기운을 간지럼 태우는 그 모습이 털복숭이 강아지꼬리를 닮았다고 해서 이름이 지어졌을거에요^^



꽃	암수딴그루, 잎보다 꽃이 먼저 핀다.
잎	어긋나고 거꾸로 된 피침형~넓은 피침형
열매	긴 원통형
특징	개울가에서 자란다.

관찰포인트를 알아볼까요 ^^

갯버들은 자연사랑길의 계곡 근처에서 쉽게 관찰할 수 있어요!
이른 봄에 핀 갯버들의 꽃은 마치 솜털을 입고 있는 듯한 모습을 하고 있어서 매우 예쁘답니다.
기다란 꽃 이삭을 흔히 '버들강아지'라고 불러요~

각시붓꽃(*Iris rossii*)

• *개화시기 : 4~5 월*

stoRy 새색시를 닮은 각시붓꽃

각시붓꽃은 꽃봉오리가 먹물 머금은 붓 모양을 닮았고, 이름은 새색시처럼 어여쁘고 작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에요~
각시붓꽃은 봄부터 초여름까지 핍니다. 잎 사이에서 자란 손가락 하나 정도의 짧은 꽃대에 보랏빛 꽃이 핍니다.
붓꽃의 꽃봉오리를 떠올리며 정갈한 마음으로 먹을 갈아 붓글씨를 쓰며 옛 선비의 향취를 느껴보면 어떨까요?



꽃	1개의 자주색 꽃이 위로 핀다.
잎	2~3개가 2줄로 어긋나게 겹쳐 난다.
열매	6 월에 열리며 둥근 열매
특징	외화피에 황백색의 그물 무늬

관찰포인트를 알아볼까요 ^^

각시붓꽃은 내장산의 탐방로에서는 쉽게 관찰하기 어려워요~
각시붓꽃은 산기슭 숲 가장자리의 반그늘에 서식하기 때문에 숲 속 깊이 들어가지 않으면 발견할 수 없답니다.

복수초(*Adonis amurensis*)

• *개화시기 : 2~5 월*



story 봄의 전령사, 복수초

복수초(福壽草) 란 한자 그대로 복과 장수를 가져다주는 꽃이란 뜻을 가지고 있고 꽃말은 영원한 행복이랍니다.
눈꽃에서 피어나나 연꽃 같다하여 '설련화' 눈과 어름 사이에서 피어난다하여 '눈색이꽃' 또는 '얼음새꽃' 이라고도 불리웁니다.
황금색이나 부를 상징하고 겨울을 이기고 꽃을 피워내니 강인함이 더해져서 그런 이름이 붙지 않았을까요?

*관찰포인트를 알아볼까요 ^^*

복수초는 이른 봄에 내장산의 최고봉인 신선봉을 등산하면서 만날 수 있어요!
노란 복수초가 군락을 이루며 얼음을 뚫고 나온 모습을 관찰하고 싶다면 인내심을 가지고 산을 올라야 관찰할 수 있습니다.

꽃	꽃잎은 20~30 개, 수술이 많다.
잎	밑 부분의 잎은 막질, 줄기를 둘러싼다.
열매	꽃턱에 둥글게 모여 달린다.
특징	한낮에만 꽃잎이 벌어진다.

애기똥풀(*Chelidonium majus var. asiaticum*)

• *개화시기 : 5~8 월*



story 엄마의 사랑과 정성, 애기똥풀

애기똥풀은 "엄마의 사랑과 정성"이 꽃말인 야생화로 애기똥풀이라는 이름에 얽힌 전설을 거슬러 올라가면 그 이유가 흥미롭습니다. 서양의 경우는 고대 그리스 신화에서 눈에 이물질이 많아 눈을 뜨지 못한 채 태어난 아기제비가 있었는데, 이때 어미 제비가 애기똥풀의 줄기를 입으로 꺾어 거기서 나오는 유액으로 어린 아기 제비의 눈을 씻어 주었답니다. 그래서 그리스어로 제비를 뜻하는 Chelidon 에서 학명 첼리도니움(Chelidonium) 이 유래되었습니다.

*관찰포인트를 알아볼까요 ^^*

애기똥풀은 내장산에서 흔하게 관찰할 수 있는 야생화에요~ 모든 탐방로에서 쉽게 관찰할 수 있답니다.
애기똥풀의 줄기를 자르면 아기 똥과 같은 노란색 즙이 나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식물 채취가 금지된 국립공원에서는 그 모습을 관찰할 수 없습니다.

꽃	노란색 꽃이 산형꽃차례로 핀다.
잎	뿌리잎은 1~2 개로 잎자루가 있다.
열매	기다란 열매가 여물면 검은씨가 나온다.
특징	줄기나 잎을 자르면 노란색즙이 나온다.

산괴불주머니(*Corydalis speciosa*)

• *개화시기 : 4~6월*

story 보물주머니, 산괴주머니!!

산괴불주머니는 가장 쉽게 볼 수 있는 야생화입니다. 산괴불주머니라는 이름은 씨가 들어 있는 부분이 오색 비단 헝겊을 이용해 수를 놓아 만든 노리개의 모습과 닮았기 때문이에요. 산괴불주머니는 풀 전체나 뿌리를 진통, 타박상 등에 약으로 사용할 수 있어 관상용보다는 약재로 인정받는 꽃이랍니다.



꽃	황색의 많은 작은 꽃이 핀다.
잎	잎의 마지막 갈래쪽은 줄꼴의 버들잎 모양
열매	염주 모양과 비슷
특징	유독성 식물이다.

*관찰포인트를 알아볼까요 ^^*

자연사랑길과 삼청공원 및 금선계곡, 원적골자연관찰로의 계곡 근처에서 쉽게 관찰할 수 있어요!
꽃의 모양이 현호색과 비슷하지만 산괴불주머니는 현호색보다 작은 꽃들이 많이 달려 있는 것을 관찰할 수 있습니다.

애기괭이눈(*Chelidonium majus var. asiaticum*)

• *개화시기 : 4~5월*

story 괭이눈을 닮은 꽃!!

괭이는 옛 사람들이 고양이를 부를 때 쓰는 말입니다. 괭이눈 꽃이 필 때 노란 가루가 뒤덮여 있는 작은 꽃송이와 안쪽에 있는 작은 수술의 모양이 마치 어둠 속에서 빛을 발하는 고양이의 눈과 닮았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에요~
또 다른 이유는 고양이가 햇살 좋은 날 눈을 지그시 감고 있는 모습과 같다는 의미도 있습니다.



꽃	연노란색 꽃이 줄기 끝에 핀다.
잎	작은 잎몸은 둥근모양, 심장모양
열매	삭과이고 2개로 갈라지며 노란색
특징	산지의 습한 바위틈에서 자란다.

*관찰포인트를 알아볼까요 ^^*

애기괭이눈은 금선계곡과 원적계곡의 바위틈에서 쉽게 관찰할 수 있어요!
애기괭이눈을 관찰하기 위해선 계곡을 건너야 해요~
위험할 수 있으니 꼭 조심해야 해요!

뱀딸기 *(Duchesnea chrysantha)*

• *개화시기 : 4~5 월*



story 뱀이 먹는 딸기라고요?

뱀딸기는 먹어도 되는 딸기일까요?
예, 먹을 수 있어요~ 뱀딸기는 먹으면 안 된다고 알고 있는 사람이 많은데, 그렇지 않아요! 물론 지나치게 많이 먹으면 좋을 건 없겠죠?
뱀딸기는 가게에서 파는 딸기에 견주면 맛이 하나도 없는 편이에요. 초여름에 나오는 산딸기에 견주어도 맛이 떨어지고요~
그런데 왜 이 딸기를 뱀딸기라고 했을까요?
그건 뱀이 다니는 풀 숲에서 자라기 때문이에요~

관찰포인트를 알아볼까요 ^^

뱀딸기는 4 월부터 내장산의 모든 탐방로에서 쉽게 관찰할 수 있어요!
노란색의 꽃을 관찰하기도 하지만, 빨갛게 익은 열매를 보면 마치 먹고 싶은 욕구도 생긴 답니다. 하지만 먹으면 탈나요~^^

꽃

잎겨드랑이에서 나온 긴 꽃자루 끝에 1개의 노란색 꽃이 핀다. 꽃잎은 5장으로 끝이 약간 팬 거꾸로 된 세모꼴이다.



잎

잎은 3출엽이며, 작은 잎은 달걀형으로 가장자리에 톱니가 있고 뒷면에는 긴 털이 나 있다.



열매

딸기 모양의 둥근 열매는 지름이 1cm 정도이고 붉게 익으면 아이들이 따 먹는데, 딸기보다는 맛이 없고 먹으면 배앓이를 한다.



양지꽃(*Potentilla fragarioides var. major*)

• *개화시기 : 4~6월*

story 양지꽃과 뱀딸기

- 잎가장자리의 톱니 끄트머리가 양지꽃은 뾰족, 뱀딸기는 뭉툭
- 양지꽃은 무더기로 피는데 뱀딸기는 줄기 하나에 꽃 하나씩
- 꽃잎과 꽃받침의 크기 비율을 보자면 양지꽃에 비하여 뱀딸기는 꽃을 감싸 안을 듯이 크다.
- 꽃잎의 끝부분에서 살짝 들어간 곳을 보면 양지꽃에 비하여 뱀딸기의 곡선이 더 부드럽다.
- 꽃망울 부분을 보면 뱀딸기의 꽃망울이 훨씬 크고 장차 뱀딸기가 될 것임을 예상할 수 있다.



꽃 줄기 끝에서 가지마다 핀다.

잎 뿌리잎은 여러 개 나와서 사방으로 퍼진다.

열매 여원열매(수과)

특징 뱀딸기와 꽃이 비슷하다.

관찰포인트를 알아볼까요 ^^

양지꽃은 뱀딸기와 꽃이 비슷합니다.
내장산의 모든 탐방로에서 관찰할 수 있어요~
하지만 양지꽃과 뱀딸기를 구별할 수 있어야 쉽게 양지꽃을 관찰할 수 있겠죠?

괭이밥(*Oxalis corniculata*)

• *개화시기 : 5~9월*

story 고양이 밥, 괭이밥

이 풀을 왜 괭이밥이라고 했을까요?
그건 말이에요~ 동물은 다치거나 아프면 스스로 치료하는 자가 치료 능력이 있는데, 고양이는 소화가 잘 안 되거나 아플 때 괭이밥을 뜯어 먹고 몸이 낫는다고 해요.
그래서 이 풀을 괭이밥이라고 하는 것이랍니다.
괭이밥에는 잎이 붉은 '붉은괭이밥' 과 자줏빛 꽃이 피는 '자주괭이밥'도 있어요~



꽃 노란색 꽃이 봄~가을까지 핀다.

잎 작은 잎은 거꿀 심장 모양

열매 6각이 진 기둥 모양

특징 잎은 밤이면 오므려 서로 붙어 있다.

관찰포인트를 알아볼까요 ^^

괭이밥은 내장산의 모든 탐방로에서 관찰할 수 있어요!!
노란색의 꽃이 앙증맞게 피어 있는 모습을 보고 있자면 기분이 좋아진답니다.
흐린 날과 맑은 날의 괭이밥을 관찰해 비교해 보세요^^

붉은대극(*Euphorbia ebracteolata*)

• *개화시기 : 4~5 월*



stoRy 어릴 때의 색은 붉은색!

붉은대극의 줄기를 자르면 나오는 흰 유액이 독성이 강해 목구멍을 몹시 자극한다고 하여 대극(大戟)이라고 이름 붙여졌어요~ 다른 이름으로는 대극의 잎이 버드나무의 잎처럼 생기고, 잎을 자르면 옻나무처럼 흰 즙액이 나온다고 하여 '버들옻'이라고도 합니다. 새싹이 날 때 붉은빛을 띤다하여 '붉은대극'이라고 붙여졌지만, 암꽃과 수꽃이 소포엽이 없다해 '민대극'이라고도 불립니다.

*관찰포인트를 알아볼까요 ^^*

붉은대극은 자연사랑길 중간 부근과 원적골자연관찰로에서 관찰할 수 있어요~

하지만 탐방로가 아닌 곳에 있기 때문에 눈으로 직접 보기에는 어렵습니다.

원적골자연관찰로보다 자연사랑길에 있는 붉은대극의 개화가 빨라요^^

꽃	술잔모양의 꽃싸개잎 안에 핀다.
잎	줄기와 잎이 어릴 때는 홍자색
열매	열매가 위에서 아래로 벌어지는 형태
특징	내장산국립공원 특정식물

중의무릇(*Gagea lutea*)

• *개화시기 : 4~5 월*



stoRy 스님이 사는 산속에 피는 꽃

중의무릇의 학명은 Gagea lutea 의 'lutea'는 황색이라고 합니다. 노란 꽃을 가진 식물이라는 뜻이지요~

무릇은 '물기가 많은 곳이나 가장자리에 피는 꽃'이라는 뜻이에요! 중의무릇의 잎은 무릇의 잎과 비슷하게 생겼습니다.

더욱이 스님들이 사는 산 속에서 많이 발견이 되요~ 결국 중의무릇은 산 속에서 사는 무릇과 비슷한 식물이라는 뜻이랍니다.

*관찰포인트를 알아볼까요 ^^*

중의무릇은 삼청공원에서 관찰할 수 있어요~

노란색의 꽃이 모여 있어서 쉽게 찾을 수 있지만, 어두운 날씨나 흐린 날에는 꽃이 활짝 피지 않아요! 맑은날과 화창한 날에만 중의무릇은 활짝 꽃을 피운답니다.

꽃	꽃잎과 수술은 6 개씩이다.
잎	잎은 칼 모양이다.
열매	둥근 열매는 3 개의 능선이 있다.
특징	어린잎과 당 속의 비늘줄기는 약

윤판나물(*Disporum sessile*)

• *개화시기 : 4~5 월*

stoRy *윤판나물에서 겸손을 배운다!*

옛날 윤씨 성을 가진 판서댁의 중정 숲속에서 피어난 모습을 윤판서가 보고 나물같이 피어난 야생화가 겸손의 미덕을 갖춘 모습이 너무 인상적이라 항상 공직자로 백성을 위한 겸손한 마음으로 머리를 숙이고 모든 일에 정성스레 순종하는 마음을 가지게 되었다고 합니다. (중략)
임금은 그 꽃이 무척 궁금하여 윤판서 집을 직접 방문하게 되었어요. 그날따라 화려한 꽃송이를 피우고 있었지만, 겸손한 자태의 모습에 마음을 빼앗겼답니다. 그리하여 그 이름을 '윤판나물'이라고 부르게 되었어요!



꽃	길쭉한 꽃이 밑을 향해 핀다.
잎	잎자루가 없고 끝이 뾰족하다.
열매	둥근 열매는 가을에 검게 익는다.
특징	어린순을 나물로 먹는다.

관찰포인트를 알아볼까요 ^^
윤판나물은 자연사랑길과 원적골자연관찰로에서 관찰할 수 있어요~
노란색의 꽃이 밑을 향해 피어 있는 모습이 다른 꽃들과는 다르지만 윤판나물을 만나면 꽃 안을 관찰해보세요^^

금난초(*Cephalanthera falcata*)

• *개화시기 : 3~5 월*

stoRy *빛내림에 꽃잎을 연 황금색 귀부인*

금난초는 꽃이 하늘을 향해 피어나며 빛이 강한 날 황금색으로 반개합니다. 하늘을 쳐다보면서 반개한 모습이 도도하기 짝이 없어요~ 아름다운 자태와 더불어 은은한 향도 일품입니다. 금난초는 5 월에 피는데, 이때엔 많은 송화가루가 날려요~
금난초가 자라는 곳이 소나무가 우거진 숲속이다 보니, 금난초가 피었을 때 넓은 잎 식물들은 송화가루가 하얗게 앉아 있는 모습이 된답니다.



꽃	7~12 개의 황색 꽃이 핀다.
잎	줄기에 6~8 개가 어긋난다.
열매	갈색이며 긴 타원형
특징	다른 꽃들처럼 활짝 개화하지 않는다.

관찰포인트를 알아볼까요 ^^
금난초는 내장산의 깊은 산 속에서 서식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쉽게 금난초를 관찰하긴 어렵답니다.
아쉽지만 사진으로 금난초의 모습을 감상해보세요~

매미꽃(*Hylomecon hylomeconoides*)

• *개화시기 : 5~7 월*



story 매미가 울지 않아도 매미꽃은 핀다

매미가 울 무렵이면 꽃을 피운다 하여 매미꽃이라는 이름이 지어졌어요~

매미꽃은 한국 특산식물로 환경부와 산림청이 희귀식물로 지정한 법정보호식물이에요~

예쁜 꽃은 향기가 없다고 했던가~ 매미꽃은 양귀비과 식물입니다.

양귀비과 식물이 일반적으로 그렇듯이 아주 화려한 색상과 자태를 자랑하지만 향기는 거의 없는 특징이 있어요~

*관찰포인트를 알아볼까요 ^^*

매미꽃은 내장산의 탐방로에서 흔하게 관찰할 수 있는 야생화가 아니에요~

숲 속 깊은 곳에서 서식하기 때문에 우리는 쉽게 발견하지 못합니다.

내장산국립공원 특산식물로 우리가 보호해야 하는 식물 중 하나입니다.

꽃	뿌리에서 나온 꽃줄기 끝에 핀다.
잎	작은 잎은 타원형
열매	둥근 모양이며 갈색이다.
특징	한국 특산식물이다.

노랑붓꽃(*Iris koreana*)

• *개화시기 : 5~6 월*



story 베토벤이 좋아하던 꽃, 노랑붓꽃

노랑붓꽃은 음악의 성인 베토벤이 좋아하던 꽃 중의 하나로 그는 사랑하는 연인을 만나러 갈 때는 꽃 창포를 들고 갔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노랑붓꽃은 노랑무늬붓꽃과 다르고, 붓꽃은 프랑스의 국화라고 하는데, 붓꽃에 관한 전설들은 이탈리아에 있답니다.

*관찰포인트를 알아볼까요 ^^*

노랑붓꽃은 자연사랑길에서 관찰할 수 있습니다.

5 월이 되면 자연사랑길의 특별보호구 내에 노란색으로 예쁜 꽃이 피어 있는 노랑붓꽃을 관찰할 수 있어요! 하지만 특별보호구 안에 있기 때문에 가까이 관찰하기는 어렵습니다.

꽃	줄기 끝에 황색 꽃이 2 개 핀다.
잎	칼꼴의 줄모양, 끝이 뾰족하다.
열매	삭과로 둥근 모양
특징	전라도에 분포(부안, 정읍, 장성)

까치박달(*Carpinus cordata*)

• *개화시기 : 4~5 월*

stoRy 까치가 좋아하는 나무?

단군신화를 보면 환웅이(神檀樹 박달나무) 즉, 신목 아래로 내려와서 나라를 다스렸다 합니다. 그는 무리 삼천을 거느리고 태백산 神檀樹 아래에 내려와 神市 라고 일컬었다 해요~ 이때 신시가 개설된 곳의 나무가 박달나무입니다. 일본 사람들은 이 나무를 '도끼 부러지는 자작나무'라는 뜻으로 '오노오레감바'라고 불러요.
우리나라에서는 이 나무가 단단하여 홍두깨 방망이, 다듬이 받침, 도장용 재료 등으로 널리 쓰였습니다.



꽃 암수한그루로 꽃은 잎과 함께 핀다.
잎 어긋나고 달걀형, 끝이 길게 뾰족
열매 기다란 원통형
특징 암꽃이삭은 수꽃이삭보다 작다.

관찰포인트를 알아볼까요 ^^
까치박달은 내장산의 어느 탐방로에서든 관찰할 수 있어요~
키가 큰 나무이지만 암꽃과 수꽃이 5cm 정도로 길게 밑을 향하고 있어서 쉽게 관찰할 수 있습니다.

졸참나무(*Quercus serrata*)

• *개화시기 : 5 월*

stoRy 잎이 작아 졸병을 뜻하는 졸참나무

예전에는 흉년이 들면 도토리로 먹을거리를 만들어 겨울 양식으로 삼았어요~ 가을이 되면 사람들이 산으로 올라와 도토리를 줍고 나무를 털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작은 도토리를 주워가지 않았어요! 사람들은 상수리나무 도토리를 꺼내 작은 도토리와 비교해 보았어요~ 크니깐 왕이라고 하고, 작으니깐 졸 이라고 한 것이지요! 그래서 졸참나무라고 이름이 지어졌답니다.



꽃 암수한그루로 잎과 함께 핀다.
잎 거꾸로 된 달걀 모양
열매 도토리 열매는 긴 타원형
특징 나무의 생장이 빠르다.

관찰포인트를 알아볼까요 ^^
졸참나무는 다른 종류의 참나무들과 함께 흔해서 쉽게 관찰할 수 있어요!
도토리는 작은 편에 속하고 길쭉합니다. 숲에서 도토리를 쉽게 관찰할 수 있는데 가져가면 안돼요~
숲 속 동물들의 중요한 먹이거든요^^

겨우살이(*Viscum album var. coloratum*)

• *개화시기 : 3~4 월*



story 겨울에는 새들에게 최고!

겨우살이는 보통 오동나무, 팽나무, 밤나무 가지에 기생하는데, 다른 나무의 영양분을 빨아먹고 삽니다. 남의 나무에 세 들어 사는 만큼 번식하는 방법도 독특합니다.

겨우살이의 열매는 까치, 비둘기와 여러 산새들이 좋아하여 즐겨 찾는데, 새들이 열매를 먹더라도 종자와 과육은 소화가 되지 않고 그대로 배설됩니다. 끈적끈적한 점액질의 과육에 둘러싸인 종자는 마른 나뭇가지에 들러붙고 이 상태에서 겨울을 나면 싹이 트고 기생뿌리를 내리게 되는데, 이러한 현상 때문에 기생하는 나무들의 높은 가지에서 자라고 있는 것입니다.

*관찰포인트를 알아볼까요 ^^*

겨우살이는 모든 탐방로에서 관찰할 수 있으나 특히 원적골자연관찰로와 전망대 구간에서 많은 수의 겨우살이를 관찰할 수 있습니다.

그만큼 참나무류들이 많은 것을 알 수 있고, 더불어 주변에 많은 산새들이 있는 것을 관찰할 수 있어요.

꽃

잎 사이에 연노란색의 작은 꽃이 피는데 꽃자루가 없다.
총포는 술잔 모양이고 꽃잎은 없으며 꽃덮이는 종 모양으로 끝이 4 개로 갈라진다.



잎

잎은 가지 끝마다 2장씩 마주나고 피침형~타원형이며 밑으로 갈수록 점점 좁아진다.
잎자루가 없으며 짙은 녹색이고 두꺼운 가죽질이다.



열매

둥글고 겨울에 연노란색으로 익는데 끝에 꽃덮이조각과 암술머리가 남아 있다. 열매가 붉은색으로 익는 것은 '붉은겨우살이'라고 한다.



생강나무(*Lindera obtusiloba*)

• *개화시기 : 3~5 월*

stoRy *알싸한 그리고 향긋한 그 냄새...*

개나리보다 일찍 깨어나 봄을 알려주는 나무가 있어요! 이름하여 생강나무라고 해요~ 생강이 달리는 나무가 아니라 꽃이나 잎과 가지에서 생강 냄새가 난다고 하여 붙은 이름이에요~ 여러분도 한번 코에 대고 냄새를 맡아보면 절대 잊혀지지 않을 거예요. 진짜 생강처럼 톡 쏘는 향이 아니라 아주 산뜻하고 좋은 향기가 납니다.



꽃	꽃이 우산처럼 둥글게 모여 핀다.
잎	봄에 돋는 어린잎은 솜털로 덮여 있다.
열매	콩알만한 둥근 열매
특징	가지를 꺾으면 생강 냄새가 난다.

*관찰포인트를 알아볼까요 ^^*

생강나무는 자연사랑길, 삼청공원, 원적골자연관찰로에서 만날 수 있어요!
3 월이 되면 노란색의 꽃이 너무 예쁘답니다.
생강나무 근처를 지날 때면 왠지 생강냄새가 나는 것 같은 느낌이 있는데 여러분도 한 번 느껴보세요.

산수유(*Cornus officinalis*)

• *개화시기 : 3~4 월*

stoRy *노란 꽃으로 봄을 알리는 산수유*

이른 봄에 산에서 봄이 온 것을 알리는 대표적인 봄나무가 생강나무라면 마을에서 봄이 온 것을 알리는 대표적인 봄나무가 산수유에요. 산수유는 봄이 오면 나무 가득 노란색 꽃이 피고 열매는 가을이 되면 붉은 색으로 익어요.
옛날에는 산수유 몇 그루만 있으면 수확한 열매를 판 돈으로 자녀를 대학까지 보낼 수가 있어서 '대학나무'라고 부르기도 했습니다.



꽃	노란색 꽃이 둥글게 모여 핀다.
잎	잎은 마주나고 타원형~달걀형
열매	긴 타원형 핵과 열매
특징	열매는 중요한 한약재로 쓰인다.

*관찰포인트를 알아볼까요 ^^*

산수유는 자연사랑길에서 관찰할 수 있어요!
노란색의 꽃을 피운 산수유는 봄을 알리고 있고, 가을에 익은 빨간색의 열매는 매우 탐스럽습니다.
산수유의 수피가 어떤 특징이 있는지 자세히 관찰해 보세요~

상산(*Orixa japonica*)

• *개화시기 : 4~5 월*



story 이 진한 나무, 상산

상산은 향이 진하여 향기를 맡으면 '아하! 상산이다!'라고 알 정도로 향기가 진합니다.
상산을 나무 그늘 같은 곳에 심으면 파리와 같은 해충을 쫓아낼 수 있다하고, 잎과 줄기를 삶아서 그 물로 가축을 닦아주면 각종 해충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또 삶은 물로 재래식 화장실에 부어 넣으면 벌레를 죽일 수 있다고 하고, 실제로 예부터 화장실 주변에 이 나무를 많이 심었다고 해요!

*관찰포인트를 알아볼까요 ^^*

상산은 삼청공원에서 관찰할 수 있는데 상산 근처에서는 상산의 특유의 향이 납니다.
특히 잎을 만진 후 손을 코에 대면 그 냄새를 더 쉽게 알 수 있어요~
상산을 찾아 무슨 냄새가 나는지 확인해 보세요^^

꽃	암수딴그루, 자잘한 황록색 꽃
잎	어긋나고 타원형~거꾸로 된 달걀형
열매	4 개로 갈라진 삭과 열매
특징	잎에서 독특한 냄새가 난다.

까마귀밥여름나무(*Ribes fasciculatum var. chinense*)

• *개화시기 : 4~5 월*



story 까마귀밥여름나무의 정체

도대체 어떤 나무이기에 까마귀밥여름나무일까? 큼직하고 검은 느낌이 나지만 막상 이 나무를 보고 나면, 특히 봄에 작고 귀여운 꽃들과 가을에 겨우내 달려 있는 동그란 빨간 열매를 보고 있으면, 까마귀보다는 작은 종달새가 더 먼저 떠올리는 나무입니다.
일설에는 영리한 까마귀가 영양가 많은 이 나무의 가치를 잘 알고 찾아와 먹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이라는 이야기도 있어요~

*관찰포인트를 알아볼까요 ^^*

까마귀밥여름나무는 자연사랑길, 삼청공원, 원적골자연관찰로에서 관찰할 수 있어요!
노란색의 꽃이 마치 별을 닮은 모습이어서 매우 예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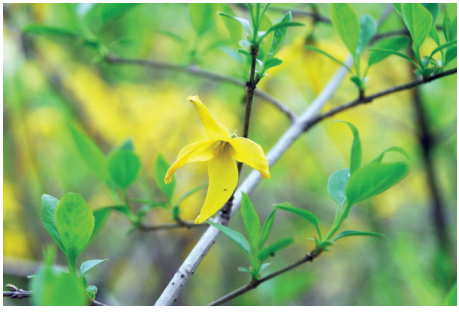
꽃	암수딴그루로 노란색 꽃이 핀다.
잎	윗부분이 3~5갈래로 갈라진다.
열매	둥근 열매는 붉은색으로 익는다.
특징	꽃잎이 뒤로 젖혀진다.

개나리(*Forsythia koreana*)

• *개화시기 : 4 월*

story 잎 가득 머금고 피어나는 개나리

봄은 뭐니 뭐니해도 노란색의 계절이에요. 노란색 하면 개나리고요! 개나리는 나리꽃과 비슷하지만 나리는 아니라는 뜻에서 유래된 이름일 거라고 해요. 개나리는 길게 늘어지는 가지에 네 장의 꽃잎으로 된 노란 꽃이 봄빛 가득 머금고 피어나요~ 그러면 어디선가 병아리 떼가 나타나 봄나들이 가자고 할 것만 같아요!^^



꽃	노란색 꽃이 1~3 개씩 달린다.
잎	잎 양면에 털이 없고 앞면에 광택
열매	달걀형 열매는 끝이 뾰족하다.
특징	휘묻이, 꺾꽂이로 번식

관찰포인트를 알아볼까요 ^^

개나리는 자연사랑길과 단풍터널에서 쉽게 관찰할 수 있어요!

봄을 알리는 대표적인 꽃이고 우리나라 사람이라면 모두 이 꽃을 알고 있을 정도로 유명하죠!^^

병꽃나무(*Weigela subsessilis*)

• *개화시기 : 5~6 월*

story 병처럼 생긴 꽃이 색깔이 변하는 나무

병꽃나무는 꽃 모양도 특이하지만 꽃의 색이 변하는 특징이 있어요! 처음에는 녹색이 도는 노란색의 꽃이 피었다가 점점 붉은색으로 변해요~

그래서 하나의 나무에 황록색과 붉은색의 꽃이 함께 달려 있는 모습이 무척이나 아름다워 보이지요.

볕이 잘 드는 곳에 있으면 꽃의 빛깔이 더욱 선명해진다고 해요!



꽃	깔때기 모양의 꽃
잎	마주나고 거꾸로 된 달걀형
열매	작고 길쭉한 열매는 2 개로 갈라진다.
특징	우리나라에서만 자라는 특산 식물

관찰포인트를 알아볼까요 ^^

병꽃나무는 자연사랑길과 원적골자연관찰로에서 관찰할 수 있어요! 자연사랑길은 신선재와 근접해 있어 관찰하기 어렵지만 원적골자연관찰로에서는 초입에 병꽃나무가 있어서 쉽게 관찰할 수 있습니다.

굴피나무(*Platycarya strobilacea*)

• *개화시기 : 5~6 월*





story 염료를 채취할 수 있는 굴피나무

굴피나무는 쓰임새가 다양한 나무입니다.
나무껍질은 머리 염색에 사용하고, 목재는 성냥개비의 재료가 되지만 조선시대에는 굴피나무 목재로 임금님의 관을 제작한 기록도 있습니다.
굴피나무의 열매는 황갈색 염료의 재료로 쓰이고, 나무껍질은 흑갈색 염료의 재료로 쓰입니다.

*관찰포인트를 알아볼까요 ^^*

굴피나무는 자연사랑길과 삼청공원에서 관찰할 수 있어요!
키가 큰 나무여서 수꽃과 암꽃을 관찰하긴 힘들지만 9월에 익은 솔방울 모양의 열매는 우리가 쉽게 관찰할 수 있습니다.

꽃	수꽃과 암꽃이 가지 끝에 선다.
잎	어긋나고 깃꼴겹잎이다.
열매	솔방울을 닮은 타원형 열매
특징	산기슭이나 바닷가에 흔히 자생

나도물통이(*Nanocnide japonica*)

• *개화시기 : 4~5 월*

stoRy 신비한 폭죽 터뜨리기

나도물통이는 꽃이 매우 작아 우리들의 시선을 잡지 못해요~
하지만 나도물통이는 신비한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은 수술이 바깥쪽으로 용수철처럼 튕기면서 꽃가루를 뿌리는 점이에요! 마치 폭죽을 터뜨리는 것처럼 말이죠!
이러한 모습을 본다면 "와~~" 라는 말밖에 나오지 않을 것 같아요~ 나도물통이는 움켜진 주먹처럼 꽃망울이 손가락을 하나씩 펴듯 터지는 모습이 너무 신비롭습니다.



꽃 긴 꽃대 끝에 수꽃이 핀다.

잎 넓은 달걀형, 잎 끝은 둔하다.

열매 타원형의 열매는 꽃잎에 싸인다.

특징 수술은 바깥쪽으로 퉁긴다.

*관찰포인트를 알아볼까요 ^^*

나도물통이는 삼청공원과 원적골자연관찰로에서 관찰할 수 있어요!
워낙 꽃이 작기 때문에 꽃인지 그냥 풀인지 구별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꽃을 관찰하기 위해서 낮은 자세로 가까이 봐야 한답니다.

개별꽃(*Pseudostellaria heterophylla*)

• *개화시기 : 4~5 월*

stoRy 땅에서 피어난 별!

별꽃, 참 예쁘죠? 이름만 들어도 별처럼 생겼을 것 같다고요?
맞아요~ 별꽃은 꽃이 별모양을 닮아서 별꽃이에요!
별꽃은 들에 나가면 쉽게 눈에 띄지만, 주변에서도 흔히 볼 수 있는 친구입니다.
아직 별꽃을 못 본 친구가 있다면 없어서 못 본 게 아니라 눈여겨보지 않아서 못 본 걸 거예요.



꽃 1개의 꽃이 위를 향해 핀다.

잎 끝이 뾰족한 타원형 잎

열매 달걀형의 열매

특징 4 장의 잎이 십자 모양

*관찰포인트를 알아볼까요 ^^*

개별꽃은 매우 흔한 야생화에요~
내장산의 모든 탐방로에서 쉽게 관찰할 수 있지만 특히 원적골자연관찰로에는 개별꽃뿐만 아니라 쇠별꽃 등 다양한 별꽃들을 관찰할 수 있답니다.

개구리발톱(*Semiaquilegia adoxoides*)

• *개화시기 : 4~5 월*



stoRy 개구리 발가락을 닮은 꽃

식물이름도 동물이나 그 모습을 보고 짓는 일이 많습니다. 개구리발톱도 이름에서 보 듯 씨방이 개구리발톱을 닮았다고 하여 붙여진 이름이에요~ 하지만 실제로 개구리에게는 발톱이 없어요!
개구리 발 등 사이에 발톱 같은 것이 보이긴 하지만 이는 뼈로 봅니다.
예전에 개구리발톱의 이름을 지을 때 개구리에게 보였던 뼈가 발톱처럼 보였나 봅니다.
그래서 개구리발톱이라고 이름이 지어졌나 봐요^^

*관찰포인트를 알아볼까요 ^^*

개구리발톱은 삼청공원과 원적골자연관찰로에서 관찰할 수 있어요!
흰 꽃이 고개를 숙이고 있어서 꽃의 안을 관찰하긴 어렵지만 왜 개구리발톱이라는 이름이 지어졌는지 생각하며 관찰해 보면 어떨까요?

꽃

줄기 끝, 잎겨드랑이에서 나온 1개 또는 몇 개의 꽃줄기 끝에 흰색, 연한 분홍색 꽃이 1개씩 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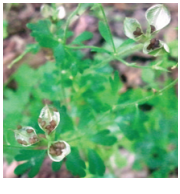
잎

잎은 뿌리 잎과 비슷하지만 작다.
줄기 잎은 뿌리 잎과 비슷하지만 작다.



열매

꼬투리열매는 3개가 별 모양으로 달린다.
열매가 개구리가 발가락을 편 모양이라 이름 지어졌다.



만주바람꽃(*Isopyrum mandshuricum*)

• *개화시기 : 4~5 월*

story 만주지역에서 자란 만주바람꽃

만주바람꽃은 만주지역에서 자라 만주바람꽃이라는 이름이 붙었어요!
추운 곳에만 사는 북방계 식물인데도 내장산에서 살고 있답니다. 바람꽃 중에서도 크기가 작고 너무 가련해서 만져 보기조차 매우 어려운 꽃입니다.



꽃	누른빛이 도는 흰색 꽃이 모여 핀다.
잎	뿌리잎은 둥그스름한 오각형
열매	열매는 둥글고 털이 있다.
특징	만주에서 최초로 발견된 식물

*관찰포인트를 알아볼까요 ^^*

만주바람꽃은 금선계곡에서 관찰할 수 있어요!
하지만 깊은 숲 속에 있기 때문에 쉽게 관찰하기 어려운 식물입니다.
또한 내장산국립공원 특정식물이기에 우리가 보호해야할 식물이기도 합니다.

변산바람꽃(*Pseudostellaria heterophylla*)

• *개화시기 : 3 월*

story 변산에서 처음 발견된 변산바람꽃

바람꽃은 이른 봄부터 초여름까지 피는 시기에 차이는 있지만 종류가 약 20 여 가지가 됩니다.
그 가운데 이른 봄에 피는 바람꽃의 종류는 개화 순서에 따라 변산바람꽃, 너도바람꽃, 꿩의바람꽃, 만주바람꽃, 나도바람꽃 등으로 나열 할 수 있어요.
변산바람꽃은 바람꽃 가운데 가장 먼저 꽃을 피워 봄소식을 전해줍니다. 그야말로 봄기운의 끼새만 있으면 꽃을 피운다고 할 수 있어요.



꽃	포 가운데에서 나온 꽃자루 끝에 핀다.
잎	둥그스름한 오각형
열매	열매는 대과, 종자는 둥글고 갈색
특징	우리나라 특산식물

*관찰포인트를 알아볼까요 ^^*

변산바람꽃은 금선계곡에서 관찰할 수 있어요!
탐방로 옆으로 개화하기 때문에 쉽게 관찰할 수 있답니다.
하지만 꽃이 예쁘다고 꺾어 가면 안되요! 변산바람꽃은 우리나라 특산식물이랍니다.

너도바람꽃(*Eranthis stellata*)

• *개화시기 : 3~4 월*



stoRy 새롭게 봄을 시작하는 봄의 선물

너도바람꽃은 '새롭게 시작되는 봄의 선물' 이라는 꽃말을 가지고 있어요!
너도바람꽃의 학명 중에 Eranthis 라는 라틴어는 봄꽃이라는 말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른 봄에 꽃을 피우는 야생화들은 독성을 가지고 있는데 짐승들에게 먹이 감으로 피해를 입지 않으려는 지혜가 담겨있어요!
너도바람꽃은 꽃대를 아낌없이 한 개만 올리고 하나의 예쁜 눈꽃송이를 펼쳐 보여주는 야생화입니다.

*관찰포인트를 알아볼까요 ^^*

너도바람꽃은 숲 속 깊은 곳에서 서식하고 있어요!
탐방로 근처에서는 발견할 수 없으며 우리들이 쉽게 찾을 수 없는 곳에서 산답니다.
너도바람꽃은 사진으로 관찰해야 해요 ^^

꽃

꽃은 자줏빛으로 끝이 3갈래 갈라지고 항아리 모양을 하며 잎 사이에서 올라오기 때문에 잎을 보고 쌓여 있는 낙엽을 들어내면 속에 꽃이 숨어 있습니다.



잎

잎은 폭이 5~10㎝이고 줄기 끝에서 2장이 나며 표면은 녹색이고 뒷면은 잔털이 많으며 줄기는 자줏빛을 띱니다.



열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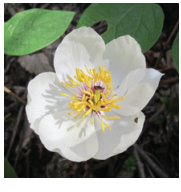
관찰해열매는 골돌과로 6월에 성숙하며 2~3개로 반달 모양이다.
종자는 갈색이고 둥글며 밋밋한 편이다.



백작약(*Paeonia japonica*)

• *개화시기 : 5~6 월*





꽃

5~7장의 흰색의 꽃송이가 약간 끝을 오므려 마치 작은 항아리를 만들 듯 붙어 있고 그 속에는 노란 수술이 아름답게 안겨 있습니다.



잎

잎은 길이 5~12㎝, 폭 3~7㎝로 앞면은 녹색이지만 뒷면은 흰빛이 돌며 3~4 개가 어긋나게 달리고 긴 타원형입니다.



열매

꽃이 모두 지고 나면 열매만이 남아 있는데 예뻤던 꽃의 모습을 생각해보면 열매의 모습은 볼품없습니다.

stoRy 깊은 숲 속에서 만나는 꽃, 백작약

꽃이 귀하게 느껴지는 것은 왜 그럴까요?
우선 꽃이라는 것이 인공으로는 도저히 만들어 내지 못하는 아름다움을 간직하고 있기도 하지만 보고 싶어도 쉽사리 보기 어려워지면 더욱 간절함이 쌓이기 때문이지 않을까요?
백작약도 그런 식물 중의 하나입니다.
늦은 봄 깊고 깊은 숲에 가야만 만날 수 있는 백작약!
인적이 거의 없는 깊은 산골짜기, 길이라도 이리저리 헤매다가 문득 조우하는 백작약!
많은 풀들이 모여 사는 숲에서 고만고만한 키에 쑥 하니 꽃대를 올려 탐스럽게 핀 백작약의 모습을 볼 때 적어도 그 순간에 느끼는 감동만큼은 그 어떤 식물의 만남과도 비교할 수 없답니다.

관찰포인트를 알아볼까요 ^^

백작약은 원적골자연관찰로에서 관찰할 수 있지만 내장산국립공원의 특정식물이기 때문에 눈으로만 관찰해야 한답니다.^^

큰괭이밥(*Oxalis obtriangulata*)

• *개화시기 : 4~5 월*



story 괭이밥 중 제일 큰, 큰괭이밥

큰괭이밥은 비늘로 싸인 뿌리줄기로 번식하며, 잎은 뿌리에서 나와요~ 잎자루 끝에서 셋으로 나뉘는 3출엽의 잎은 하트 모양이거나 삼각형 모양인데, 꽃이 진 후에도 잎이 계속 크게 자라 초록색 나비가 앉아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마치 토끼풀처럼 보이기도 하지만 좀 더 크고 잎 가장자리가 밋밋한 것이 달라요~
큰괭이밥은 생으로 먹을 수도 잇고 봉선화로 손톱을 물들일 때 백반 대신 사용하기도 합니다.
잎을 찧어 옴이나 독충에 쏘였을 때 바르거나, 불면증이 있을 때 괭이밥에 솔잎과 대추를 넣어 달여 먹으면 효과가 좋다고 해요^^

*관찰포인트를 알아볼까요 ^^*

큰괭이밥은 금선계곡에서 만날 수 있어요!
탐방로 옆으로 흰 색의 꽃을 피운 모습을 관찰할 수 있고 꽃을 관찰하기 위해서는 낮은 자세를 유지해야 합니다.

꽃

꽃줄기 끝에 흰색 꽃 한 송이가 옆을 향해 피며 해가 지면 꽃잎이 오므라든다.
꽃 밑에 포가 있으며, 5 갈래로 갈라지는 꽃받침에는 털이 있다.



잎

뿌리 잎은 3출엽으로 잎자루가 길다.
작은 잎은 거구로 된 삼각형 모양이다.



열매

달걀형의 열매는 길이가 2cm이며 7~8 월에 익는다.



돌단풍(*Aceriphyllum rossii*)

• *개화시기 : 5~6 월*

story 단풍처럼 곱고, 나리처럼 예쁜 꽃

단풍잎처럼 갈라진 잎과 바위틈에서 자라는 특성으로 인해 돌단풍이라는 이름이 지어졌어요! 봄이면 잎이 붙어 있진 않은 꽃대에서 작고 하얀 꽃들을 무리 지어 피우고, 가을엔 붉게 물든 잎을 볼 수 있습니다.
잎이 단풍잎과 비슷해서 '돌단풍', 꽃이 나리꽃처럼 예뻐서 '돌나리' 지만 단풍이나 나리꽃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독립적인 생명체입니다.



꽃	고깔 모양의 꽃송이
잎	손바닥 모양의 잎
열매	달걀모양의 열매
특징	잎의 모양이 단풍잎과 비슷

*관찰포인트를 알아볼까요 ^^*

돌단풍은 금선계곡과 입암지킴터~장성새재 구간에서 관찰할 수 있어요!
계곡 근처나 바위틈에서 자라기 때문에 관찰하기 좋은 장소에서 서식하진 않아요!

산자고(*Tulipa edulis*)

• *개화시기 : 4 월*

story 산속의 자애로운 시어머니

산자고는 시어머니가 며느리의 등창을 치료해 준 '산에 자라는 자애로운 시어머니'라는 의미가 담겨 있어요!
며느리는 늘 피해자의 입장을 묘사해서 식물 이름이 붙여지고 있는 것을 볼 때 이 산자고는 이름의 유래만으로도 사람들로부터 크나 큰 사랑을 듬뿍 받아도 손색이 없는 식물입니다.



꽃	흰 꽃이 1 개씩 위를 향한다.
잎	2 개의 뿌리 잎은 선형
열매	세모진 둥근 열매
특징	꽃잎 바깥쪽에는 자주색 줄무늬

*관찰포인트를 알아볼까요 ^^*

산자고는 삼청공원과 원적골자연관찰로에서 관찰할 수 있어요!
산자고는 개체수가 많기 때문에 일부러 찾으러 다니지 않아도 쉽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국수나무(*Stephanandra incisa*)

• *개화시기 : 5 월*



stoRy 숲의 지혜, 국수나무

국수나무는 줄기를 잘라, 나무속을 밀어 보면 국수가락처럼 하얗게 나온다 해서 이름이 지어졌어요! 이 국수나무는 속이 텅 빈 하얀 국수발 속을 가진 덕분에 유연한 몸을 가지고 있어서, 숲 속에서 키 큰 나무와 높이 경쟁하기 보다는 해가 잘 드는 곳으로 유연한 가지를 늘어뜨리기도 하고, 혹시나 가지가 땅에 닿으면 뿌리를 내리며 적응하고 살아가는 지혜를 가지고 있답니다.

*관찰포인트를 알아볼까요 ^^*

국수나무는 원적골자연관찰로에서 관찰할 수 있어요! 꽃이 매우 작아 가까이 다가가야 그 모양을 자세히 관찰할 수 있습니다.
탐방로 옆에 있으니 쉽게 관찰할 수 있어요!

꽃	누른빛이 도는 흰색 꽃
잎	어긋나고 세모진 넓은 달걀형
열매	둥근 열매는 겉에 털이 있다.
특징	가지를 자르면 흰 국수가락처럼 나온다.

찔레꽃(*Rosa multiflora*)

• *개화시기 : 5 월*



stoRy 아름다운 꽃에는 가시가 있다.

찔레는 줄기에 가시가 많아서 잘 찌르기 때문에 붙은 이름이에요~ 목장에 둘러치는 철선이 바로 소나 양이 찔레를 피해 가는 모습을 보고 만든 것이라고 해요!
그래서 찔레가 덤불을 이룬 숲은 그 안으로 들어가기 어렵지만 작은 새들한테는 좋은 은신처가 되어주기 때문에 열매까지 달린 찔레덤불에서는 많은 새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관찰포인트를 알아볼까요 ^^*

찔레꽃은 원적골자연관찰로에서 관찰할 수 있어요!
향기가 매우 좋은 나무여서 가까이 가면 좋은 향기를 맡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조심하세요!
가시가 많고 주위에 벌도 많답니다.

꽃	흰색, 연한 홍색 꽃이 피며 향이 좋다.
잎	어긋나고 깃골겹잎
열매	콩알만한 열매로 붉은색
특징	줄기에 가시가 많다.

산벗나무(*Prunus sargentii*)

• *개화시기 : 4~5 월*

stoRy 산에 사는 벚나무, 산벚나무

산벚나무는 산에 사는 벚나무라는 뜻으로 이름이 지어졌어요!우리나라에 자생하는 벚나무 중에는 첫째, 전국적으로 흩어져 자라는 꽃과 잎이 함께 피는 벚나무를 비롯하여 둘째, 지리산 등에서 자라는 것으로 꽃이 가장 일찍 피는 올벚나무, 셋째 한라산 등에 자라며 잎보다 꽃이 먼저 피는 한국의 대표적인 벚나무인 왕벚나무, 넷째 울릉도에 자라며 꽃빛깔이 유난히 연 흰색의 '섬벚나무' 등이 있어요!



꽃 연한 홍색~흰색 꽃이 핀다.

잎 긴 달걀형이며 끝이 뾰족하다.

열매 둥근 열매는 검은색으로 익는다.

특징 씨방이 없다.

*관찰포인트를 알아볼까요 ^^*

산벚나무는 봄에 내장산의 어느 장소에서든 관찰할 수 있어요!

특히 내장산에 오는 도로 가에 있는 산벚나무와 서래봉의 산벚나무는 경관을 감상하기에도 매우 좋은 곳입니다.

아까시나무(*Robinia pseudoacacia*)

• *개화시기 : 5~6 월*

stoRy 아낌없이 주고 또 주는 아까시나무

5월의 밤공기를 향긋하게 만드는 친구가 아까시나무에요~ 깊어가는 밤, 어디선가 불어오는 꿀 향기에 취하죠!

아까시나무는 헐벗은 우리의 산을 푸르게 만들었고, 땅을 기름지게 만들었으며, 우리에게 꿀과 풋거름과 땔감과 가축의 먹이까지 주는 친구예요~ 말 그대로 아낌없이 주는 친구죠!

그래서 아까시나무를 '아낌없이 주는 나무'라고 불러요^^



꽃 흰색 꽃이 모여 핀다.

잎 어긋나고 깃꼴겹잎

열매 기다란 꼬투리 열매

특징 향기가 매우 강하다.

*관찰포인트를 알아볼까요 ^^*

아까시나무는 자연사랑길과 원적골자연관찰로에서 관찰할 수 있어요!

우리가 흔히 "아카시아나무"라 부르는 나무가 바로 아까시나무입니다. 아까시나무는 향이 좋으니 관찰하면서 꽃의 향기도 같이 맡아 보세요!

고추나무(*Staphylea bumalda*)

• *개화시기 : 5~6 월*



stoRy 고추는 안 열려요~

꽃에서 혹시 고추 냄새가 날거라고 생각하면 틀리답니다.
놀랍게도 아주 은은하고 좋은 향기가 나요! 산에서 꽃을 구경하다가 어디서 이렇게 좋은 향기가 날까 하고 고개를 들어보면 고추나무의 꽃이 내려다보고 있곤 해요~
대개의 나무가 그러는 것처럼 꽃에서 좋은 향기가 나는 고추나무는 잎이나 가지에서도 비슷한 향기가 납니다.

*관찰포인트를 알아볼까요 ^^*

고추나무는 모든 탐방로에서 쉽게 관찰할 수 있어요!
고추나무의 잎은 고춧잎을 닮아 고추나무라는 이름이 지어졌답니다.
고추나무의 꽃을 관찰해 보세요~ 마치 별과 닮은 모습이에요!

꽃	가지 끝에 자잘한 꽃이 핀다.
잎	마주나고 3출엽이다.
열매	부풀은 반원형 열매
특징	잎은 고춧잎을 닮았다.

박쥐나무(*Alangium platanifolium var. trilobum*)

• *개화시기 : 5~7 월*



stoRy 박쥐를 닮은 나무, 박쥐나무

누구라도 박쥐나무의 잎만 보면 박쥐를 닮았다고 생각을 할 거에요~ 박쥐나무는 키가 크게 자라지 않는 나무에요! 크게 자라면 3m 남짓 자란다고 하는데 줄기가 여러 개 올라오는 특성이 있어 크게 자라지 않는답니다. 박쥐나무가 자라는 곳을 보면 햇빛이 잘 드는 양지 곧 보다는 키가 큰 다른 나무의 그늘 아래서 햇볕을 받으며 잘 자라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관찰포인트를 알아볼까요 ^^*

박쥐나무는 모든 탐방로에서 관찰할 수 있어요!
꽃의 모양이 특이해서 쉽게 찾을 수 있답니다.
박쥐나무의 꽃 모양이 어떻게 생겼는지 주의 깊게 관찰해 보세요!

꽃	꽃잎이 용수철처럼 뒤로 말린다.
잎	어긋나고 잎몸은 얕게 갈라진다.
열매	둥근 달걀형
특징	잎이 박쥐의 날개를 닮았다.

산딸나무(Cornus kousa)

• 개화시기 : 5~6월

story 딸기 모양의 열매를 여는 산딸나무

산 속의 커다란 나무에 딸기 모양의 열매가 달리는 걸 본 적 있나요? 이름하여 산딸나무라고 해요! 산에 살면서 딸기 모양의 열매를 맺는 나무라는 뜻이에요! 기다란 꽃대 위에 달리는 산딸나무의 꽃은 네 장의 꽃잎으로 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건 꽃잎이 아니라 '총포조각'이라고 해요! 어떤 선생님은 이것을 '넉 장의 식탁보' 라고 하셨는데, 정말로 딱 맞는 표현인 것 같아요^^



꽃 가지 끝에 꽃이 핀다.

잎 마주나며 달걀형~타원형이다.

열매 딸기 모양의 열매

특징 흰색 총포조각이 꽃잎처럼 보인다.

관찰포인트를 알아볼까요 ^^

산딸나무는 자연사랑길과 삼청공원, 원적골자연관찰로에서 쉽게 관찰할 수 있어요!
흰색으로 보이는 것이 마치 꽃잎처럼 보이지만 아니에요~ 꽃은 총포조각 안에 있는 녹색의 둥근 모양이 꽃이랍니다.

층층나무(Cornus controversa)

• 개화시기 : 5월

story 팔만대장경에 쓰인 나무, 층층나무

층층나무는 팔만대장경에 쓰인 나무 중 하나 임이 밝혀지면서 매우 유명세를 톡톡히 치룬 나무입니다. 그런데 워낙 가지를 층층이 넓게 펴서 그늘을 지우므로 낮은 키의 다른 나무들이 자라지 못하게 방해한다고 해서 미움을 사기도 하는 나무랍니다.



꽃 납작한 모양이고 자잘한 꽃이 핀다.

잎 어긋나며 넓은 달걀형~타원형

열매 콩알만한 둥근 열매

특징 꽃이 나무에 층을 이루며 핀다.

관찰포인트를 알아볼까요 ^^

층층나무는 자연사랑길과 원적골자연관찰로에서 관찰할 수 있어요!
특히 자연사랑길 계곡 가에서 쉽게 관찰할 수 있습니다.
정말 층을 이루며 꽃이 필까요?

곰의말채(*Cornus macrophylla*)

• *개화시기 : 6~7월*



story 말의 채찍으로 쓰인 나무

곰의말채는 말채나무와 같이 어린 가지를 이용하여 말의 채찍으로 쓰여 이름이 지어졌다고 해요!
말채나무와의 구별은 잎의 측맥으로 구별합니다.
하얀꽃을 피우는 곰의말채는 수형도 우아한 자태를 뽐냅니다.
가지 사이로 다이아몬드형의 황백색의 화관을 하고 자잘하게 피어 있는 곰의말채는 한자로는 "양자목"이라고 하여 혈을 안정시키고, 타박상과 뼈가 부러지는 곳에 한약재로 쓰인다고 합니다.

*관찰포인트를 알아볼까요 ^^*

곰의말채는 층층나무와 거의 비슷한 모습으로 구별하기 어려워요!
관찰하기 쉬운 곳은 자연사랑길과 삼청공원이 만나는 다리 옆에 곰의말채가 있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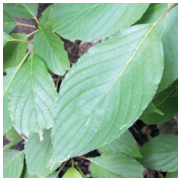
꽃

가지 끝의 산방꽃차례에 자잘한 흰색 꽃이 모여 핀다.
꽃대는 길이 3~4cm, 꽃잎은 넓은 피침형 또는 긴 타원형이다.



잎

마주나며 타원형~넓은 타원형으로 끝이 길게 뾰족하며 가장자리에 톱니가 없다. 잎 뒷면은 흰빛이 돌며 털이 많다.



열매

열매는 둥글고 푸른빛이 도는 검은 색으로 익는다.



때죽나무(*Styrax japonic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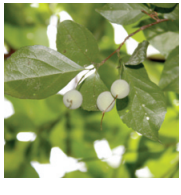
• *개화시기 : 5~6 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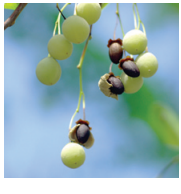
꽃

잎겨드랑이에서 나온 총상꽃차례에 종 모양의 흰색 꽃이 2~6 개씩 매달린다.



잎

어긋나며 달걀형~ 긴 타원형으로 끝이 뾰족하고 가장자리에 치아 모양의 톱니가 약간 있거나 없다.



열매

타원형 열매는 연녹색을 띠며 익으면 겁질이 불규칙하게 갈라진다.

stoRy 때를 빼주는, 때 많은 나무

때죽나무는 옛날에 열매를 짓찧어 푼 물에 빨래를 해서 기름때를 뺐기 때문에 그런 이름이 붙었을 것이라고 해요!
나무껍질이 검은빛이어서 '때가 많은 껍질의 나무'라는 뜻으로 때죽나무가 되었다고도 합니다.
5 월이 되면 종 모양의 흰 꽃이 아래를 보고 일제히 피어나요!
한두 송이가 아니라 여러 송이가 한꺼번에 피기 때문에 무척이나 아름다운 장면을 만들어내요~
꽃에서는 금방이라도 마취될 것만 같은 향기가 납니다.

*관찰포인트를 알아볼까요 ^^*

때죽나무는 삼청공원과 원적골자연관찰로에서 관찰할 수 있어요!
주렁주렁 꽃이 매달려 있는 모습도 꽃이 계곡에 장관을 이룬답니다.

덜꿩나무(*Viburnum erosum*)

• *개화시기 : 5 월*



story 들꿩이 좋아하는 나무

달력으로는 아직 봄이지만 체감으로 여름이 느껴지는 이때 산 속에서 시원하게 피어나는 하얀 꽃들이 있는데 바로 덜꿩나무에요.
왜 덜꿩나무가 되었을까? 이 나무처럼 가깝게 있는 나무이면서도 목재로 사용할 만큼 굵게 자라지도 않고 특별한 쓰임새로 보편화 되지도 않은 대부분의 식물들이 그러하듯이 뭐 특별히 이 나무에 대한 기록이나 이야기가 없어 알 수 는 없지만 혹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들꿩나무에서 덜꿩나무로 변한 것이 아닐까?"
가을에 열매가 익으면 산에서 살고 있는 들꿩들이 잘 먹게 생겼으니 말입니다.

*관찰포인트를 알아볼까요 ^^*

덜꿩나무는 금선계곡과 원적골자연관찰로에서 관찰할 수 있어요!
덜꿩나무는 산가막살나무와 매우 비슷해서 굉장히 구별하기 어려운 나무입니다.
덜꿩나무를 찾아 산가막살나무와 비교해 보세요!

꽃

짧은 가지 끝의 산방꽃차례에 자잘한 흰색 꽃이 피는데 꽃받침에 별 모양의 털이 있다.



잎

마주나고 달걀형~거꾸로 된 달걀형이며 가장 자리에 뾰족한 치아 모양의 톱니가 있다.
별 모양의 털이 앞면에는 드문드문 있고 뒷면에는 촘촘히 난다.
턱잎이 있다.



열매

열매는 달걀형의 원형, 붉은색으로 익으며 종자는 양쪽에 홈이 있고 9 월 중순~10 월 초에 성숙한다.



쥐똥나무(*Ligustrum obtusifolium*)

• *개화시기 : 5~6 월*

stoRy 이름 좀 바꿔주면 안될까요?

쥐똥나무는 열매의 모양이 쥐똥 같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에요~ 제가 쥐똥나무라면 이 이름에 대해 무척 억울해할 것 같아요! 하고 많은 이름 중에 왜 하필 쥐의 똥이냐고요~ 차라리 북한에서처럼 '검정알나무'라고 하면 좀 나을지 모르겠어요. 밭의 경계를 정하기 위해 심는 나무라고 하여 '자나무'라고도 했답니다. 셋 중 하나를 고르라고 한다면 아무래도 검정알나무가 제일 좋겠어요!



꽃 가지 끝의 흰색 꽃이 핀다.

잎 마주나고 긴 타원형

열매 콩알만한 타원형 열매

특징 열매의 모양이 쥐똥을 닮았다.

관찰포인트를 알아볼까요 ^^

쥐똥나무는 자연사랑길과 삼청공원에서 쉽게 관찰할 수 있어요!

하얀 꽃이 자잘하게 피어 있는 모습이 예쁩니다. 특히 열매를 관찰해보세요~

정말 쥐똥을 닮았을까요?

매실나무(*Cornus controversa*)

• *개화시기 : 2~4 월*

stoRy 어머니가 되는 것을 알려주는 나무

꽃을 말할 때는 '매화나무', 열매를 말할 때는 '매실나무'라고 해요.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매'라는 말은 '어머니가 되는 것을 알리는 나무'라는 뜻에서 유래되었다고 해요~

아기를 가진 여자는 속이 곧잘 느글느글해서 신맛이 나는 과일을 찾게 되는데, 그 중 하나가 매실이랍니다.

그러니 매실을 찾게 되면 임신하지 않았을까 하고 생각하는 거에요^^



꽃 흰색이나 연분홍색 꽃이 핀다.

잎 어긋나고 달걀형~넓은 달걀형

열매 둥근열매는 황색으로 익는다.

특징 매실나무는 중국의 나라꽃

관찰포인트를 알아볼까요 ^^

매실나무는 자연사랑길과 삼청공원, 원적골자연관찰로 초입에서 관찰할 수 있어요!

매실나무의 꽃이 너무 예뻐서 다른 지방에서는 축제도 한답니다. 하지만 내장산의 매실나무도 그에 못지않게 예쁘답니다.

석창포(*Acorus gramineus*)

• *개화시기 : 5~7 월*



story 든 나무와 풀의 덕성을 갖춘 식물

석창포는 모든 나무와 풀의 덕성을 고루 갖춘 식물이라 하여 문방오우로 대접하여 선비의 서가에 높이 올려 동거동락 하였던 식물이에요~ 시대가 변하여 화려한 외국 꽃에만 관심이 쏠려 우리선비들이 즐겼던 석창포의 멋을 아는 이가 몇이나 되겠어요? 석창포는 생명력이 강하고 향기가 좋으며 그늘에서 자라고 물을 좋아하는 식물입니다. 또한 우리의 머리를 맑게 하는 효과도 탁월한 식물입니다.

*관찰포인트를 알아볼까요 ^^*

석창포는 계곡에서 자라는 식물이에요~
원적골자연관찰로에서 관찰할 수 있습니다.
처음 석창포를 만나면 꽃인지 풀인지 잘 구별하기 어렵지만 석창포라는 것을 알고 관찰한다면 매우 재미있는 식물입니다.

꽃	연 노란색 꽃이 빽빽이 핀다.
잎	선형으로 가장자리가 밋밋하다.
열매	녹색의 원형
특징	내장산국립공원 특산식물

천남성(*Arisaema amurense var. serratum*)

• *개화시기 : 5~6 월*



story 장희빈의 사약이 된 천남성

천남성이란 이름을 처음 듣는 사람은 '첫~남성'이라고 듣고서는 묘한 상상을 하게 됩니다.
이름도 범상치 않아요~ 성질이 극양에 가까워 하늘에서 가장 양기가 강한 남쪽 별에 빗대어 이름을 정했다는 설이 있답니다. 독성이 매우 강한 풀이에요!
수정조차도 많은 죽음의 제물을 전제로 이루어집니다.
그 잔혹한 천남성은 숙종이 장희빈에게 준 사약의 재료이기도 합니다.

*관찰포인트를 알아볼까요 ^^*

천남성은 깊은 산 속에서 관찰할 수 있는데 금선계곡과 원적골자연관찰로에서 관찰할 수 있어요~
내장산에는 천남성과 큰천남성을 관찰할 수 있는데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직접 눈으로 확인해 보는 것도 재미있습니다.

꽃	줄기 끝에 꽃이 핀다.
잎	긴 잎자루에 작은 잎이 붙는다.
열매	옥수수 이삭 모양
특징	열매는 붉은색으로 익는다.

삿갓나물(*Paris verticillata*)

• *개화시기 : 5~6 월*



stoRy 항암작용에 뛰어난 삿갓나물

삿갓나물은 항암작용에 좋은 식물이에요~ 중국에서는 뇌종양, 비인암, 식도암, 피부 지방종양 등에 삿갓나물을 주재로 한 약을 써서 상당한 효과를 거두고 있다고 합니다. 삿갓나물 속에 들어 있는 사포닌 성분이 갖가지 암과 병원균 및 각종 균을 죽이는 작용을 해요! 하지만 국립공원에서는 아름다운 꽃을 피우는 하나의 식물로서 관찰해 주세요^^

꽃	꽃자루 끝에 노란색 꽃
잎	타원형 잎
열매	흑자색의 둥근 열매
특징	독성이 있다.

관찰포인트를 알아볼까요 ^^

삿갓나물은 금선계곡과 원적골 자연관찰로에서 관찰할 수 있어요!
원적골자연관찰로는 계곡을 건너야 관찰할 수 있지만 금선계곡은 탐방로 옆에 있어서 쉽게 관찰할 수 있습니다.

둥글레(*Polygonatum odoratum var. pluriflorum*)

• *개화시기 : 5~6 월*

stoRy 저 깔끔한 풀이름이 뭘까?

둥글레는 희면서 연둣빛이 살짝 도는 종 모양 꽃이 피어요!
약간 흰 줄기에 한 면으로 쏠리듯 붙은 잎은 예사롭지 않아 보이지요~
"저렇게 깔끔하고 멋스러운 풀이름은 뭘까?" 하지만 이름을 알고 보면 잎이 둥글둥글하게 생겨서 붙어서 둥글레라고 지어졌나 하고 생각하게 됩니다.



꽃	백록색 꽃이 1~2 개씩 핀다.
잎	어긋나는 긴 타원형
열매	콩알만한 둥근 열매
특징	어린잎과 뿌리줄기는 먹는다.

관찰포인트를 알아볼까요 ^^

둥글레는 자연사랑길과 원적골자연관찰로에서 관찰할 수 있어요!
꽃이 녹색을 띠고 있어서 쉽게 꽃인지 열매인지 헷갈릴 때도 있어요!
둥글레의 꽃을 자세히 관찰해 보세요^^

보춘화(*Cymbidium goeringii*)

• *개화시기 : 3~4 월*

story 춘란이라는 이름의 보춘화

이름에서부터 봄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면 예로부터 누구에게나 사랑 받는 봄꽃이었음을 알 수 있어요! 그것은 대부분의 난초과 식물들이 가지고 있는 소박한 아름다움에 있을 것입니다. 특히 보춘화는 적당한 향기가 있고 화려하지 않으면서도 은은한 아름다움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혹독한 겨울을 넘기고 꽃을 피우는 강인함도 있어요~ 이런 이유 때문에 보춘화의 꽃말을 '소박한 마음'이라 했는지 모르겠어요^^



꽃	연한 황록색 꽃
잎	뿌리에서 모여 나는 선형 잎
열매	열매는 곧게 선다.
특징	춘란이라고 부른다.

*관찰포인트를 알아볼까요 ^^*

보춘화는 흔히 춘란이라고 부르는데 난초과 중 가장 쉽게 관찰할 수 있어요!
소나무 군락지에서 관찰할 수 있으며 내장산의 정규 탐방로에서는 관찰하기 힘듭니다.

화살나무(*Euonymus alatus*)

• *개화시기 : 5 월*



story 나 크지? 힘 쎄지?

화살나무는 가지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원래 나뭇가지 옆으로 딱딱하고 얇은 껍질이 붙여 있는 것이 보일 겁니다.
마치 화살에 붙은 날개처럼 말이죠!
나무가 자기 몸을 지키려고 곁가지를 잔뜩 붙이고 있는 것이에요~

*관찰포인트를 알아볼까요 ^^*

화살나무는 자연사랑길과 원적골자연관찰로에서 관찰할 수 있어요!
회잎나무와 거의 비슷한데 가지에 있는 날개가 없는 것을 보고 구별할 수 있어요~
화살나무를 관찰하며 회잎나무 또한 관찰해 보세요~

꽃	황록색 꽃이 2~3 개 핀다.
잎	마주나며 타원형
열매	타원형 열매, 붉은색으로 익는다.
특징	가지에 2~4 줄의 날개가 있다.

비자나무(*Torreya nucifera*)

• *개화시기 : 4 월*



꽃



암수딴그루로 연노란색 수꽃은 잎겨드랑이에 달리고, 암꽃은 어린 가지 밑 부분에 달린다.

잎



선형 잎은 깃털처럼 가지에 2줄로 마주나고 가죽질이며 단단하고 끝이 날카롭다. 잎의 주맥은 뒷면에서만 도드라진다.

열매



열매는 대가 없고 거굴달걀모양 또는 타원형으로 육질의 종의로 싸여 있는 핵과이다.

stoRy 쓰임새가 좋았던 비자나무

비자나무의 열매 속의 씨를 비자라고 하는데, 예전부터 몸속의 기생충을 없애는 구충제로 이용했어요~
또 씨로 짠 기름은 먹기도 하고 머릿기름이나 등잔불 기름으로도 쓰였답니다.
비자나무 목재는 결이 곱고 가공이 쉬워 가구를 만들거나 조각을 하는 데 이용되는 귀한 목재였어요!
비자나무 가지를 꺾으면 독특한 냄새가 나는데, 여름에는 잎이 달린 가지를 잘라 태워 그 연기로 모기를 쫓기도 하였습니다.

관찰포인트를 알아볼까요 ^^

비자나무는 원적골자연관찰로에서 군락지로 관찰할 수 있어요!
약 300년의 수령을 자랑하는 비자나무는 그동안의 세월을 느낄 수 있을 정도로 웅장하답니다.
비자나무 군락지에서 삼림욕체험을 해보세요^^

삼나무(*Cryptomeria japonica*)

• *개화시기 : 3~4 월*



story 피톤치드 이야기

피톤치드란 무엇일까요? 피톤치드란 식물이 병원균, 해충, 곰팡이에 저항하려고 내뿜는 방어용 휘발성 물질이에요~
산 속에 들어가면 숲의 향기가 감돌아 상쾌한 숲 내음을 맡을 수가 있는데 이 향기의 성분이 바로 피톤치드입니다.
피톤치드를 발산하는 숲의 수많은 나무들 중에도 편백나무와 삼나무의 피톤치드 함량이 매우 높아서 일반나무에 비해 많은 양의 피톤치드를 발산한답니다.

*관찰포인트를 알아볼까요 ^^*

삼나무는 편백나무와 함께 삼청공원에서 관찰할 수 있어요! 그 곳에서 피톤치드를 느끼면서 삼림욕 체험하기 아주 좋답니다.
맑은 공기를 느끼면서 삼나무와 편백나무를 관찰해 보세요~

꽃	타원형의 수꽃은 연노란색
잎	차츰 가늘어져 끝이 날카롭다.
열매	둥근 솔방울 열매
특징	짧은 비늘 모양의 잎

참회나무(*Euonymus oxyphyllus*)

• *개화시기 : 5~6 월*



story 참회나무의 결실

참회나무의 꽃은 가슴 깊이 곱게 가두어 두었던 그리움이 얼마나 컸었는지 터트리는 아픔을 두 번이나 겪는 꽃입니다.
5월 숲 속 초록 그늘에서 연록색 꽃봉오리를 터트리며 연록색 꽃 잎 5장으로 화려하지도 않고 수수하게 탄생합니다.
참회나무의 꽃은 그렇게 다소곳이 쑥스럽게 피어난 나무 꽃입니다.

*관찰포인트를 알아볼까요 ^^*

참회나무는 전망대로 오르는 길과 원적골자연관찰로에서 관찰할 수 있어요!
꽃의 크기가 작아 지나칠지도 모르니 주의를 집중하면서 관찰해 보세요~

꽃	꽃잎은 5장이다.
잎	마주나고 달걀형이다.
열매	둥근 열매는 붉은색으로 익는다.
특징	열매가 갈라지면 씨가 드러난다.

내장산의 여름

붉은색

고마리	가시여뀌
노루오줌	자주꿩의다리
큰도둑놈의갈고리	물봉선
이질풀	익모초
꽃며느리밥풀	엉겅퀴
영아자	뻐꾹나리
닭의장풀	하늘말나리
일월비비추	무릇
참나리	박주가리
백양꽃	자귀나무
산수국	작살나무
배롱나무	칡
멍석딸기	

노란색

눈괴불주머니	뱀무
짚신나물	원추리
노랑어리연꽃	진노랑상사화
꾸지뽕나무	산초나무
붉나무	까마귀베개
개오동	

흰색

흰진범	큰까치수영
파리풀	멸가치
천마	등골나물
백운란	대흥란
사위질빵	나도밤나무
장구밥나무	계요등

녹색

개모시풀	거북꼬리
댕댕이덩굴	담쟁이덩굴
사람주나무	조릿대



갈퀴나물

고마리 (Persicaria thunbergii)

• 개화시기 : 8~10 월



story 고마리꽃의 유래

이름부터 좀 신기하지만 생긴 모습 역시 다른 꽃과는 완연히 다르면서 참으로 신기하게 생긴 꽃이에요!
고마리 꽃이 서식하는 곳이 물가나 늪지 혹은 하수도 부근 같은 곳에서 서식하다보니 지역적인 환경 때문에 오염되고 썩은 물을 깨끗하게 정화 시켜주는 역학을 한다고 생각하여 고마우이, 혹은 고맙다 라고 하다가 고마리가 되었다고 하기도 합니다.

관찰포인트를 알아볼까요 ^^

고마리는 계곡이 있는 곳이면 어디서든지 관찰할 수 있어요!
그래서 모든 탐방로에서 쉽게 관찰할 수 있답니다
붉은색의 꽃과 흰색이 꽃이 아름답게 어우러진 모습을 관찰해 보세요!

꽃	붉은꽃과 흰꽃이 모여 핀다.
잎	잎자루가 있으나 윗부분은 없다.
열매	세모진 달걀모양
특징	계곡과 물이 있는 곳을 좋아한다.

가시여뀌 (Persicaria dissitiflora)

• 개화시기 : 8~9 월



story 가시모양을 가진 가시여뀌

여뀌도 가문이 꽤나 복잡해요~ 지금 생각나는 친구들만 해요 가시여뀌, 이삭여뀌, 흰꽃여뀌, 개여뀌 등이에요!
그 중 가시여뀌는 좀 특이한 모습이에요! 온 몸이 털복숭이이거든요~ 가시여뀌의 꽃말은 '학업의 마침' 이에요!
평소에 열심히 공부했나봐요^^

관찰포인트를 알아볼까요 ^^

가시여뀌는 삼청공원과 금선계곡, 원적골자연관찰로에서 관찰할 수 있어요!
처음 보면 마치 가시가 있는 것처럼 보여 만지면 아플 것 같지만 사실 가시가 아닌 털이랍니다.
만져도 아프지 않으니 관찰하며 촉감도 느껴보세요.

꽃	연한 홍색 꽃
잎	피침모양이며 끝이 뾰족하다.
열매	세모지며 흰색이다.
특징	줄기에 털이 빽빽이 있다.

노루오줌(*Astibe chinensis var. davidii*)

• *개화시기 : 3~4 월*



stoRy 노루의 오줌냄새가 나는 풀

노루오줌은...
노루가 물을 마시러 옹달샘에 왔다가 오줌을 자주 싸고 가서 뿌리에서 노루오줌 같은 역겨운 냄새가 난다고 해서 이름이 붙여졌어요.
한여름에 숲속 그늘진 곳에서 고운 분홍빛의 꽃 이삭을 곧추 세우고 벌과 나비를 유혹한답니다.
여름에 숲에서 피는 꽃들은 짙푸른 나뭇잎 사이에서 자신의 존재를 알리려는 듯 하얀 색으로 피어나는 경우가 많은데, 노루오줌은 분홍빛으로 자잘한 꽃들이 뭉쳐서 피어나 색다른 아름다움을 보여줍니다.

꽃	홍자색이 많은 꽃이 핀다.
잎	달걀꼴의 긴 타원모양
열매	삭과로 열린다.
특징	관상용으로 많이 심는다.

*관찰포인트를 알아볼까요 ^^*
노루오줌은 삼청공원과 원적골 자연관찰로에서 관찰할 수 있어요!
하지만 노루오줌이 많은 개체가 꽃을 피우는 것이 아니어서 쉽게 관찰하기는 어렵습니다.

자주꿩의다리(*Thalictrum uchiyamai*)

• *개화시기 : 6~7 월*

stoRy 고고한 자주꿩의다리

자주꿩의다리의 다른 이름은 "자주가락풀"이라고도 불립니다.
이 자주꿩의다리의 꽃말은 "순간의 행복", "지성"이라고 해요!
우리나라 각처의 산지에서 관찰할 수 있어요!
생육환경은 물기가 많은 돌 틈이나 반그늘인 곳의 유기질 함량이 많은 곳에서 자랍니다.



꽃	흰빛이 도는 자주색 꽃
잎	심장꼴의 달걀모양
열매	반거꿀달걀모양
특징	우리나라 특산종

*관찰포인트를 알아볼까요 ^^*
자주꿩의다리는 자연사랑길과 금선계곡, 원적골자연관찰로에서 관찰할 수 있어요!
우리나라 특산식물로서 우리들이 보호해야할 식물 중 하나입니다.

큰도둑놈의갈고리(*Desmodium oldhami*)

• *개화시기 : 8~9 월*



story 이름이 왜 도둑놈의갈고리일까?

이름이 왜 '도둑놈의갈고리' 일까?
이름도 참 희안하지요?
꽃이 진 후에 선그라스 닮은 씨방이 생겼다가 점점 갈색으로 변해갑니다.
그 끝을 보면 살짝 휘어진 갈고리가 생겨서 지나가는 누군가의 옷깃을 끌어당긴답니다.
굳이 설명을 하려면 후손을 멀리 보내 퍼뜨리려고 하는 식물의 본능입니다.
도둑처럼 몰래 자신의 씨앗을 다른 생명체에 붙이는 특성을 보고 이름을 도둑놈의갈고리라고 지었나봐요^^

*관찰포인트를 알아볼까요 ^^*

큰도둑놈의갈고리는 모든 탐방로에서 관찰할 수 있어요! 열매에 털이 있어 동물의 털이나 사람의 옷에 잘 붙는 특징이 있어요~ 길을 걸으며 여러분의 옷에 큰도둑놈의갈고리를 옷에 붙여보세요~

꽃

잎겨드랑이에서 나온 긴 꽃줄기에 송이꽃차례를 이루고 연한 홍색 꽃이 모여 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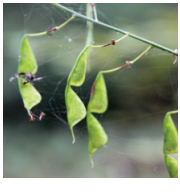
잎

어긋나게 붙으며 잎자루가 길고 홀수 1회 깃모양겹잎으로 작은 잎은 5~7 개이며 달걀모양, 긴 타원 모양이고 끝이 뾰족하다.



열매

열매는 꼬투리열매이고 2 개의 마디가 밑으로 처지고, 갈고리 모양의 털이 퍼져나며, 마디 조각은 반달형이다.



이질풀(*Geranium thunbergii*)

• *개화시기 : 8~9월*

stoRy *쥐의 앞발을 닮은 이질풀*

이질풀은 쥐손이풀과에 속하는 식물인데 그 이름이 재미 있어요~ 그 잎의 모양이 쥐의 앞발을 닮았다는 데서 비롯되었다고 해요!
크기야 쥐의 앞발과 비교도 되지 않을 만큼 크지만 그 모양은 아닌게 아니라 닮아 있어요~



꽃	연한 홍색, 홍자색으로 핀다.
잎	마주 붙고 손바닥 모양
열매	삭과로 5개로 갈라진다.
특징	밝을 때 꽃을 활짝 핀다.

관찰포인트를 알아볼까요 ^^

이질풀은 자연사랑길과 삼청공원에서 흔히 관찰할 수 있는 야생화입니다.
분홍색과 흰색의 꽃을 피우고 있어서 아름답습니다.
어두울 때는 꽃봉오리를 열지 않고 밝을 때 꽃봉오리를 활짝 피는 특성이 있어요!

물봉선(*Impatiens textori*)

• *개화시기 : 8~9월*

stoRy *물봉선도 꽃물이 들까?*

물봉선은 이름에서도 알 수 있듯 물을 아주 좋아해요~ 주로 산골짜기나 산자락 물이 흐르는 곳에 무리지어 자라는데, '야봉선' 혹은 '물봉숭아'라 하기도 해요!
물봉선 꽃말도 봉숭아처럼 '나를 건드리지 마세요' 예요! 만지면 톡 터져 버리는 열매 때문에 생긴 말이에요~
참! 물봉선은 꽃물이 들지 않아요^^



꽃	송이모양의 꽃이 핀다.
잎	어긋나고 피침모양
열매	삭과로 피침영
특징	물가에 피는 봉선화

관찰포인트를 알아볼까요 ^^

물봉선은 계곡 근처에서 쉽게 관찰할 수 있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봉선화가 물을 좋아하면 물봉선이에요!
물에 사는 봉선화~ 궁금하지 않나요??

꽃며느리밥풀(*Melampyrum roseum*)

• *개화시기 : 7~9 월*



story 스피톤치드 이야기

아들을 장가보낸 홀어머니가 며느리한테 자식을 빼앗긴 마음이 분해 아들을 멀리 일 보내 놓고 며느리에게는 종일 일만 시키고 구박하는데다가 밥까지 굶겼다고 합니다. 참고 참으며 시집살이하던 며느리가 하루는 저녁밥을 짓다가 뜸이 잘 들었나하여 솥뚜껑을 열고 몇 알 떠서 맛을 보는데 그만 시어머니에게 들키고 말았습니다. 화가 난 시어머니는 어른이 맛보기 전에 먼저 밥을 퍼 먹는다고 부지깽이로 때려죽였다고 해요. 이렇게 죽은 며느리가 묻힌 무덤에서 피어난 꽃이 바로 '꽃며느리밥풀'입니다.

*관찰포인트를 알아볼까요 ^^*

꽃며느리밥풀은 원적골자연관찰로에서 관찰할 수 있어요!
관찰로 옆으로 홍색의 꽃을 피운 것을 관찰할 수 있답니다.

꽃	홍색의 꽃을 피운다.
잎	마주 달리고 좁은 달걀모양
열매	달걀모양으로 끝이 뾰족하다.
특징	가장자리에 가시모양이 있다.

익모초(*Leonurus sibiricus*)

• *개화시기 : 7~9 월*



story 산모에게 유익한 풀

익모초는 '이로움, 고생 끝에 즐거움이 온다.' 라는 꽃말을 가진 야생화입니다. 익모초는 꽃보다는 약초로 더 잘 알려져 있는데 여자들에게 특히 좋다고 해요 ~
시골에선 흔하지만 아주 유용하게 쓰이는 약초랍니다.
하지만 야생화로서 분홍빛 꽃이 아주 예쁩니다.

*관찰포인트를 알아볼까요 ^^*

익모초는 매우 흔한 야생화입니다.
자연사랑길과 원적골자연관찰로에서 관찰할 수 있어요!
꽃의 모양이 돌림꽃으로 피기 때문에 어느 방향에서도 꽃을 관찰할 수 있답니다.

꽃	홍자색, 입술모양의 꽃
잎	달걀꼴의 둥근 모양
열매	넓은 달걀모양
특징	산모에게 특효약이라는 뜻을 가진다.

영아자(*Phyteuma japonicum*)

• *개화시기 : 7~9 월*

stoRy 우리 곁의 야생화, 영아자!
안녕~ 나는 영아자라고 해!
나는 산골짜기 낮은 지대에서 자란단다. 나는 자주색 꽃을 피우고 꽃잎은 깊게 5 개로 갈라져서 나지~ 수술은 5 개이고, 수술대에도 털이 있으며 암술은 1 개가 있단다~



꽃	자주색 꽃이 송이모양이다.
잎	어긋나고 긴 달걀모양
열매	납작한 공 모양
특징	어린 잎은 나물로 먹는다.

*관찰포인트를 알아볼까요 ^^*
영아자는 자연사랑길, 금선계곡과 원적골자연관찰로에서 관찰할 수 있어요!
가끔 자주색 꽃이 아닌 흰색의 영아자도 관찰할 수 있습니다.

엉겅퀴(*Cirsium japonicum*)

• *개화시기 : 6~8 월*

stoRy 엉겅퀴에 얽힌 전설
젖소를 길러 우유를 짜서 장터에 팔러 다니는 한 소녀의 이야기입니다. 무거운 우유 통을 머리에 이고 장터로 가는 소녀의 발걸음은 가벼웠어요. 소녀의 머리속은 우유를 팔아서 무엇을 살까? 하는 즐거운 생각뿐이었습니다. 산을 넘어 오솔길을 걸을 때였습니다. 바람을 탄 엉겅퀴가시가 소녀의 종아리를 찌르고 말았습니다. 소녀는 깜짝 놀라 중심을 잃고는 넘어져 길가에 있는 돌에 머리를 부딪혀 어이없게도 죽고 말았어요. 소녀는 죽어서 자기가 기르던 젖소로 변하였습니다. 그래서 자기를 찌른 길가의 엉겅퀴를 자기의 꿈을 앗아가 버렸다고 모두 뜯어 먹으면서 돌아다녔대요.



꽃	자주색 꽃이 머리 모양이다.
잎	좁은 타원형 모양
열매	수과로 길이가 3.5~4cm 정도
특징	꽃은 전부 관상화이다.

*관찰포인트를 알아볼까요 ^^*
엉겅퀴는 자연사랑길과 원적골자연관찰로에서 관찰할 수 있어요!
꽃의 모양이 독특해서 쉽게 알아볼 수 있답니다.
가시 같이 생긴 것이 모두 꽃이에요~

백양꽃(*Lycoris sanguinea var. koreana*)

• *개화시기 : 8~9 월*





stoRy 우리나라의 토종 상사화, 백양꽃

백양꽃은 수선화과의 우리나라 토종 상사화에요~
우리나라의 백양사 근처에서 처음으로 발견되어 식물학계에 보고되었기에 이름을 백양꽃이라고 지었답니다.
상사화속의 꽃은 우리나라에 8종이 있는데 백양꽃, 꽃무릇, 진노랑상사화, 상사화, 위도상사화, 제주상사화, 흰상사화, 붉노랑상사화가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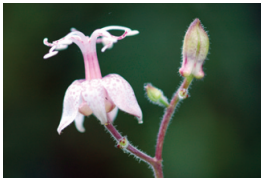
*관찰포인트를 알아볼까요 ^^*

백양꽃은 모든 탐방로에서 관찰할 수 있어요!
우리나라 특산식물인 백양꽃은 다른 상사화들과 함께 매우 아름다운 자태를 보여주고 있으며, 백양꽃을 관찰하며 다른 상사화들과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비교해보세요~

꽃	줄기 끝에 붉은 벽돌색 꽃
잎	엄지잎줄은 흰빛이 돈다.
열매	삭과로 둥근 열매
특징	맨처음 백양산에서 발견되었다.

뻐꾹나리(*Tricyrtis dilatata*)

• *개화시기 : 7~9월*



꽃

7월에 줄기 끝과 가지 끝에 연자주색꽃이 위를 향해 핍니다.
6개의 꽃잎은 뒤로 젖혀지며 겉에 자주색 반점이 있어요.



잎

잎은 어긋나고 달걀을 거꾸로 세운 듯한 모양의 타원형입니다.
잎 아래부분은 원줄기를 감싸고 가장자리가 밋밋하고 털이 있어요.



열매

열매는 삭과로 바소꼴이고 길이는 약 2cm 정도이며 종자는 편평한 타원형입니다.



*관찰포인트를 알아볼까요 ^^*

내장산국립공원의 연자봉과 신선봉 사이의 삼거리에서 관찰할 수 있어요~
산행으로 인해 몸이 힘들지만 뻐꾹나리를 발견한다면 이내 모든 피로가 풀릴거에요 ^^
뻐국나리는 내장산국립공원의 특정식물이랍니다.

stoRy 자주색 보석이 알알이 아주 특별한 꽃 '뻐꾹나리'

뻐꾹나리. 이름이 너무 재밌어요! 하지만 모습이 더욱 신기하답니다. 어떤 이는 꼴뚜기 모양이라 하고 어떤 이는 뻐꾸기시계처럼 튀어나오는 모습이라고도 합니다.
꽃은 자주색 반점들이 가득히 귀엽고도 개성있게 박혀 있어요. 그 사이에 다시 여섯 개의 수술과 가운데에 불쑥 올라와 갈라진 암술의 모양이 꽃의 핵심이 된답니다.

닭의장풀(*Commelina communis*)

• *개화시기 : 7~9 월*



story 독 아래로 숨은 꽃잎을 가진 닭의장풀

닭의장풀은 '달개비' 라는 이름으로 더 잘 알려져 있어요! 길가나 빈 터 그리고 산자락에서도 쉽게 볼 수 있는 이 풀은 닭장 주변에서도 잘 자라고, 꽃 모양이 닭의 볏을 닮았다고 닭의장풀이라고 해요~ 닭 볏을 닮았다는 꽃잎은 마치 파란 나비가 앉아 있는 것 같아요! 옛날에는 이 꽃잎으로 비단 염색을 했다고 하니, 그 비단이 얼마나 고왔을지 짐작이 가요~

*관찰포인트를 알아볼까요 ^^*

닭의장풀은 모든 탐방로에서 흔하게 관찰할 수 있는 야생화에요~
너무 흔해서 발에 밟힐 정도랍니다.
푸른색과 붉은색의 닭의 장풀은 조화를 잘 이루고 있으니 자세히 관찰해 보세요!

꽃	하늘색 꽃이 심장모양이다.
잎	어긋나고 달걀꼴의 피침 모양
열매	타원형 모양
특징	닭장 밑에 자란다 해서 이름이 지어졌다.

일월비비추(*Hosta Capitata*)

• *개화시기 : 7~8 월*



story 꽃이라 부를까? 새라 부를까?

줄기에 묶여 달려서 하늘을 날지 못하는 새가 있으니 바로 비비추입니다. 새의 창공을 날고자 하는 그 욕망이 이 꽃의 화려함에서 측은이 느껴져요~ 긴 혀를 있는 대로 벌려 지저귀며 금방이라도 하늘로 박차고 나갈 그 기세가 처음 보는 이도 그리 느껴지지요~ 비비추의 생생한 생동감의 아름다움이 사람들로 하여금 오래도록 기억하게 만듭니다.

*관찰포인트를 알아볼까요 ^^*

비비추는 원적골자연관찰로에서 관찰할 수 있어요!
자주색 꽃이 푸르르 식물들 사이로 매우 아름다워요~
꽃이 한 쪽으로 치우쳐서 쉽게 관찰할 수 있습니다.

꽃	연한 자주색 꽃이 핀다.
잎	달걀꼴의 심장모양
열매	긴 타원형 모양
특징	꽃은 한 쪽으로 치우쳐 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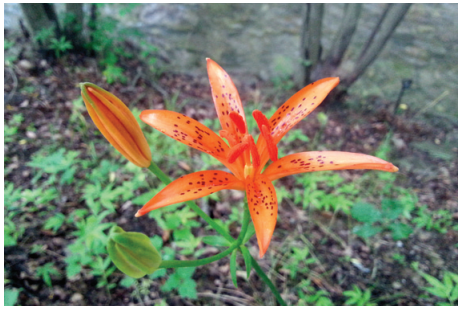
하늘말나리(*Lilium tsingtauense*)

• *개화시기 : 7~8 월*

story 하늘을 향하는 꽃, 하늘말나리

백합과의 여러해살이풀인 하늘말나리입니다. 말나리처럼 잎이 돌려나면서 꽃이 하늘을 향하고 있어서 하늘말나리라고 부르며, 우산말나리라고도 부른답니다.

산기슭이나 낙엽수림 주변에서 살며 높이가 1m 쯤 자라구요. 잎은 줄기 가운데서는 5-10 개씩 돌려나며, 끝이 뾰족하고 긴 타원 모양이지요. 꽃은 누런 빛을 띤 붉은색 바탕에 자주색 반점이 있고 약간 뒤로 젖혀진답니다.



꽃	등황색 꽃이 위를 향해 핀다.
잎	큰 잎은 피침모양
열매	도란상 원주형
특징	하늘을 향해 꽃을 핀다.

관찰포인트를 알아볼까요 ^^

하늘말나리는 원적골자연관찰로에서 관찰할 수 있어요! 하늘을 향해 피운 꽃이 마치 태양을 따라 가고 싶은 듯한 느낌이 납니다.

꽃잎에는 검은 점들이 있는데 원적골자연관찰로에서 관찰해 보세요!

참나리(*Lilium lancifolium*)

• *개화시기 : 7~8 월*

story 나으리 꽃, 나리꽃

우리 꽃 가운데 나리 종류를 소개 할께요!

참나리는 깨를 뿌려 놓은 듯 점이 있고, 땅나리는 꽃이 땅을 보고 피고, 하늘나리는 하늘을 보고 피죠!

또 이름에 '말나리' 가 붙는 나리 종류는 이파리가 우산살처럼 돌아 나고요~ 하늘말나리는 꽃이 하늘을 보고 피고, 중나리는 하늘도 땅도 아닌 중간, 그러니까 옆을 보고 피어요!

마지막 털중나리는 털이 유난히 많답니다.



꽃	가지끝과 원줄기 끝에 꽃이 핀다.
잎	어긋나고 피침모양
열매	잎겨드랑이에 살눈이 달린다.
특징	나리꽃 중 가장 쓸모가 많다.

관찰포인트를 알아볼까요 ^^

참나리는 자연사랑길에서 관찰할 수 있어요!

땅을 바라보며 피어 있는 꽃은 키가 1m 이상이나 된답니다.

꽃이 커서 관찰하기 정말 좋아요^^

무릇(*Scilla scilloides*)

• *개화시기 : 7~9 월*



story 무릇 사람은....

무릇을 왜 무릇이라고 하는지는 아무도 몰라요~
무릇 잎은 두 장이나 여러 장이 모여서 올라와요~
털이 하나도 없어 윤기가 반지르르 나는 잎은 두껍고 끝이 뾰족해요!
무릇 잎만 보고 난이 아니냐고 묻는 사람도 많답니다.
그만큼 무릇 잎이 보기도 좋고, 깔끔하고 귀해 보인다는 말이겠지요^^

*관찰포인트를 알아볼까요 ^^*

무릇은 자연사랑길과 삼청공원에서 관찰할 수 있는 야생화에요~ 꽃의 모양이 길쭉하니 여러 개가 모여 핍니다.
무릇을 자세히 관찰하기 위해선 무릎을 꿇어주면 됩니다.^^

꽃	연한 홍자색이 모여 핀다.
잎	끝은 뾰족하고 털은 없다.
열매	도란상 구영이다.
특징	잎은 봄, 가을 2차례 걸쳐 나온다.

층층이꽃(*Clinopodium chinense var. parviflorum*)

• *개화시기 : 7~8 월*



story 층층 올라가며 꽃이 피는 층층이꽃

층층이꽃은 요즘 꽃층층이라고도 불리는 야생화에요~
7~8 월에 꽃을 피우는데 층층 올라가며 꽃이 피어 이런 이름이 붙었겠지요?
층층이꽃은 '제비둥지' 라는 꽃말을 가지고 있어요~

*관찰포인트를 알아볼까요 ^^*

층층이꽃은 원적골자연관찰로에서 관찰할 수 있어요! 꽃이 마디마다 층층으로 피어서 이름이 지어졌답니다.
층층마다 꽃의 모양이 같을까요? 다를까요?
직접 관찰해 보세요~

꽃	입술모양꽃이 층층으로 핀다.
잎	마주 붙고 달걀모양
열매	둥글고 약간 편평하다.
특징	꽃이 마디마다 층층으로 핀다.

박주가리(*Metaplexis japonica*)

• *개화시기 : 7~8 월*

stoRy 박 바가지 닮았어요~

박주가리 열매는 익으면 저절로 벌어져 씨가 날아가는데, 하얀 갓털이 마치 백로의 깃털처럼 깨끗하고 부드러워요~

가금 다 날아가지 않은 박주가리 씨를 불어 날리는 재미가 아주 쏠쏠해요!

박주가리는 씨를 날려 보낸 열매 껍질이 물 뜨는 박 바가지를 닮았다고 박주가리라 해요~



꽃	자주색이고 송이모양이다.
잎	마주 붙고 달걀꼴, 심장모양
열매	짐승 뿔모양이다.
특징	유독성 식물이다.

관찰포인트를 알아볼까요 ^^

박주가리는 삼청공원과 내장호자연학습시설에서 관찰할 수 있어요!

꽃이 별모양을 닮았고, 꽃잎에는 자잘한 털이 있는 것을 관찰해 보세요~

산수국(*Hydrangea serrata for. acuminata*)

• *개화시기 : 7~8 월*

stoRy 산에서 자라는 수국, 산수국

7월이 되면 산수국 가지 끝에는 커다란 접시 모양의 꽃송이가 하늘을 보고 피는데 가장자리에만 꽃잎을 가진 꽃이 빙 둘러 있어요~ 이 꽃은 암술과 수술은 없고 꽃받침조각으로만 이루어진 꽃으로 곤충을 불러 모으는 역할을 해서 장식꽃 또는 중성화라고 해요! 가운데에 있는 자잘한 꽃들은 꽃잎은 없지만 암술과 수술을 가지고 있어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양성화입니다.



꽃	연한 남색 꽃이 둥글게 모여 핀다.
잎	마주나고 타원형~달걀형
열매	달걀형~타원형이다.
특징	장식꽃을 가지고 있다.

관찰포인트를 알아볼까요 ^^

산수국은 금선계곡과 원적골자연관찰로에서 관찰할 수 있어요!

땅의 산성도에 따라 꽃의 색이 산성토양은 푸른색, 알칼리성은 붉은색으로 나뉘어 진답니다.

자귀나무(*Albizia julibrissin*)

• *개화시기 : 4 월*



stoRy 잎을 포개고 잠을 자는 나무

자귀나무는 여름에 피는 꽃의 모양이 독특하다. 가지 끝의 커다란 꽃송이에 모여 달리는 꽃은 꽃잎이 없이 수많은 수술로만 이루어져 있어 누구나 쉽게 기억할 수 있는 나무입니다.
꼬투리열매는 겨울까지 매달려 있는데 겨울바람에 서로 부딪혀 나는 소리가 여자들의 수다처럼 들렸던지 '여설목' 이라고도 했어요~
자귀나무의 깃꼴겹잎은 해가 지고 어두워지면 마주보는 잎이 2장씩 포개지는 모습이 마치 잠을 자는 것처럼 보이기도 해요!
잎은 소가 무척 좋아하는 먹이라서 남부 지방에서는 '소쌀나무' 라고 부르기도 한답니다.

*관찰포인트를 알아볼까요 ^^*

자귀나무는 자연사랑길과 삼청공원에서 관찰할 수 있어요!
붉은색의 자귀나무의 꽃은 마치 실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꽃의 모양이 어떻게 생겼는지 자세히 관찰해 보세요~

꽃

가지 끝에 많은 꽃송이가 모여 달리고 꽃은 밑에서부터 차례대로 피어 올라간다.
작은 대롱 모양의 꽃받침 속에 20~25 개의 수술과 1 개의 암술이 있다.



잎

가지에 서로 어긋나는 잎은 여러 개의 깃꼴겹잎이 다시 깃꼴 형태로 붙는 2 회깃꼴겹잎이다.
1 장의 잎에 작은잎이 많게는 360 장까지 달리기도 한다.



열매

꽃이 지면 연녹색 꼬투리 열매가 열리고 가을에 갈색으로 익으며 겨울까지 매달려 있다.



배롱나무(*Lagerstroemia indica*)

• *개화시기 : 7~9 월*

stoRy *100 일 동안 꽃이 피는 나무 백일홍*

화초 중에 꽃이 100 일 동안지지 않는다는 백일홍이 있는데, 배롱나무도 꽃이 100 일 동안 핀다 하여 백일홍이라 부르기도 하며 화초인 백일홍과 구분하기 위해 '나무 백일홍' 이라고 부르는 사람도 있어요!
또 '간지럼나무' 라고도 하는데 열룩무늬가 있는 매끄러운 줄기를 긁으면 마치 간지럼을 타듯 나무 전체가 움직여서 붙여진 이름입니다.



꽃	가지 끝에 붉은색 꽃이 핀다.
잎	둥근 타원형, 잎은 두껍다.
열매	둥근 녹색의 열매
특징	간지럼나무라는 별명이 있다.

*관찰포인트를 알아볼까요 ^^*

배롱나무는 자연사랑길과 삼청공원에서 관찰할 수 있어요!
붉은색으로 꽃이 피고 나무껍질이 매끄러운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 만져보면 매우 부드럽습니다.
배롱나무를 관찰하며 나무껍질도 만져보세요~

작살나무(*Callicarpa japonica*)

• *개화시기 : 7~8 월*

stoRy *겨울눈이 작살처럼 생긴 작살나무*

작살나무는 가운데 가지를 중심으로 양쪽으로 가지가 갈라지는 것이 막대기 끝에 삼지창 모양의 쇠를 박아 만든 물고기나 짐승을 잡는 데 쓰는 작살을 닮아서 이름을 지었어요~
또 다른 사람은 작살나무의 가지에 달린 겨울눈의 모양이 작살을 닮아서 붙여진 이름이라고 하는데 겨울눈의 모양이 가지 모양보다 작살과 더욱 비슷해요!!



꽃	자주색 꽃이 피는데 작다.
잎	마주나고 긴 타원형
열매	둥근 열매, 보라색으로 익는다.
특징	겨울눈이 작살을 닮았다.

*관찰포인트를 알아볼까요 ^^*

작살나무는 자연사랑길과 원적골자연관찰로에서 관찰할 수 있어요!
꽃이 매우 작아 자세히 관찰을 해야 해요~ 특히 겨울에는 겨울눈을 관찰해 보세요! 겨울눈이 작살을 닮았어요~

멍석딸기 (*Rubus parvifolius*)

• *개화시기 : 6월*



story 사귀 뒤에 숨어 있는 달콤한 열매

산에서 흔히 만날 수 있는 산딸기 종류는 산딸기를 비롯해 분홍색 꽃이 피는 멍석딸기와 줄딸기가 있어요~

남쪽으로 갈수록 산딸기 종류가 많아지며 남부 지방에서는 위 종류 외에도 복분자딸기나 수리딸기를 흔히 볼 수 있답니다.

여러 종류의 야생 딸기는 빨갛게 또는 까맣게 익는데 종류마다 제각각 조금씩 다른 맛을 가지고 있어 만나는 종류마다 맛을 보는 재미도 쏠쏠합니다.

관찰포인트를 알아볼까요 ^^

멍석딸기는 원적골자연관찰로에서 관찰할 수 있어요!

우리가 흔히 산딸기라고 부르는 나무가 바로 멍석딸기에요~

빨간 열매를 보면 군침을 흘릴지도 모르지만 국립공원에서는 눈으로만 관찰해 주세요^^

꽃	분홍색 꽃이 모여 핀다.
잎	세겹잎, 잎자루에 가시가 있다.
열매	둥근열매는 7~8월에 익는다.
특징	어린 가지에 가시와 털이 있다.

칡 (*Pueraria thunbergiana*)

• *개화시기 : 7~8월*



story 다른 나무를 친친 감고 오르는 칡

칡은 다른 나무를 친친 감고 올라가 못살게 굴기 때문에 숲을 가꾸는 사람들에게는 골칫덩어리 취급을 받아요~

그렇지만 칡뿌리에는 녹말이 많이 들어 있어서 흉년이 들었을 때 굶주림을 견딜 수 있는 중요한 구황 식품이었습니다.

칡뿌리를 갈아서 만든 갈분으로 갈분국수나 갈분다식 또는 갈분 엿을 만들어 먹었어요!

관찰포인트를 알아볼까요 ^^

칡은 자연사랑길과 원적골자연관찰로에서 흔히 관찰할 수 있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칡뿌리의 주인공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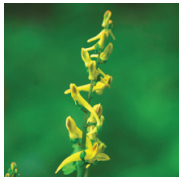
칡의 꽃을 관찰할 기회가 많지 않으니 꽃의 모양을 자세히 관찰해 보세요!

꽃	커다란 꽃송이가 달린다.
잎	세겹잎은 가지에 서로 어긋난다.
열매	꼬투리열매는 갈색으로 익는다.
특징	가을에 노란색으로 단풍이 든다.

눈괴불주머니(*Corydalis ochotensi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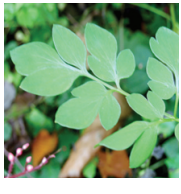
• *개화시기 : 7~9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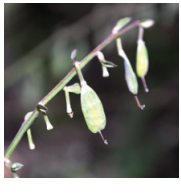
꽃

황색 꽃의 송이모양꽃차례는 가지 끝과 원줄기 끝에 달린다.
포는 달걀 모양이며 가장자리가 밋밋하다.



잎

잎은 어긋나게 붙고 잎자루가 길며 세모지고 2~3회 3출엽이다. 갈래 조각은 거꿀달걀모양으로 잎자루에 날개가 있다.



열매

삭과는 긴 거꿀달걀모양이고 7월부터 성숙한다. 종자는 흑색으로 2줄로 배열되고 광택이 나며 밋밋하다.

story 예쁘게피는 괴불주머니

눈괴불주머니는 현호색과의 속하고 전국 각지에서 자생하는 야생화에요~
눈괴불주머니는 누워서 자라기 때문에 '누운괴불주머니'라고 부르기도 해요!
하지만 실제로 눈괴불주머니를 접한다면 많이 누운 모습은 아니랍니다.
한방에서는 약재로 사용하는 야생화이긴 하지만 유독성실물이라는 점 꼭 알고 계시기 바랍니다.

관찰포인트를 알아볼까요 ^^

눈괴불주머니는 모든 탐방로에서 쉽게 관찰할 수 있어요!
노란색의 꽃이 계곡 주변으로 많이 있는 것을 관찰할 수 있고 누워서 자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뱀무(*Geum japonicum*)

• *개화시기 : 6~8 월*



stoRy 무잎을 닮은 꽃, 뱀무

뱀무는 줄기가 길게 뻗었어도 그 굵기가 실팍하고 꽃잎이 튼튼하며 꽃받침에 잘 밀착되어 다른 꽃잎처럼 쉽게 떨어지지 않아요~ 금단추 같은 큼직한 꽃송이가 컴컴한 숲 속을 환하게 합니다. 여름 숲 속 길 가에 주로 피는 뱀무는 그 잎이 마치 무잎과 같다하여 뱀무라는 이름이 붙었어요!
또 꽃이 귀에 들어가면 귀가 먼다는 속설이 있어 '귀머거리풀'이라는 이름도 갖고 있답니다.

*관찰포인트를 알아볼까요 ^^*

뱀무는 모든 탐방로에서 관찰할 수 있습니다.
뱀무를 모르는 사람은 애기똥풀이라고 착각할 수 있지만 전혀 다른 꽃이에요!
뱀무와 애기똥풀을 함께 관찰해보며 비교해 보세요!

꽃	줄기 끝에 황색 꽃이 핀다.
잎	넓은 달걀 모양
열매	두상과로 다소 구형
특징	잎에는 치아모양의 톱니

짚신나물(*Agrimonia pilosa*)

• *개화시기 : 6~8 월*



stoRy 신을 닮은 꽃, 짚신나물

짚신나물은 여름에 산과 들에서 기다란 고개를 내밀고 피어나는 야생화입니다.
뜨거운 여름을 보내고 나면 갈고리 같은 털을 숭숭 달아 짚신나물을 스쳐 지나가는 모든 것을 붙잡고 긴 여행을 한답니다. 그렇게 여행을 하다 그 어딘가에 떨어지게 되면 거기에서 긴 잠을 자다가 싹을 틔우고 꽃을 피웁니다.

*관찰포인트를 알아볼까요 ^^*

짚신나물은 삼청공원과 원적골자연관찰로에서 관찰할 수 있어요!
길쭉 길쭉하니 노란색의 꽃이 예쁘답니다.
풀잎이 짚신 모양을 닮았다고 하는데 관찰해 보세요~

꽃	가지 끝에 황색 꽃이 핀다.
잎	일그러진 달걀모양
열매	도원추형으로 술잔모양
특징	풀잎의 주름이 짚신 모양

원추리(*Hemerocallis fulva*)

• *개화시기 : 6월*

stoRy 근심을 잊게 하는 꽃, 원추리

옛글에 아녀자들이 원추리를 내당 뜨락에 심어 놓고 원추리의 향기를 맡으며 전쟁터로 떠난 남편을 기다리던 이야기가 심심치 않게 있어요~
마음속에 근심을 잊게 하는데 원추리 만 한 것이 없지 싶어요! 마음이 울적하거나 남모르는 근심 걱정이 있다면 집안에만 머물지 말고 숲으로 나가 원추리를 만나보세요!



꽃	황색, 6~8개의 꽃이 뭉쳐 핀다.
잎	잎은 칼처럼 생겼다.
열매	넓은 타원형 모양
특징	아침에 피고 저녁에 시든다.

관찰포인트를 알아볼까요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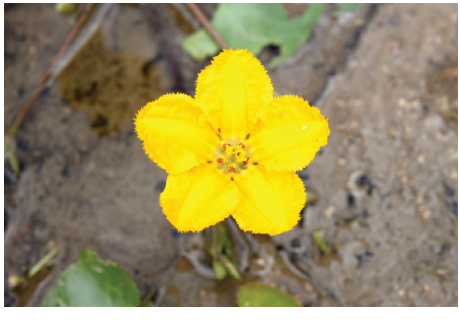
원추리는 자연사랑길과 삼청공원과 원적골자연관찰로에서 관찰할 수 있어요!
칼처럼 생긴 잎만 발견해도 원추리라는 것을 쉽게 알 수 있답니다.

노랑어리연꽃(*Nymphoides peltata*)

• *개화시기 : 6~8월*

stoRy 연못에 피는 대표적인 수생식물

노랑어리연꽃은 어리연꽃과 비슷하지만 잎도, 꽃도 훨씬 작은 좀어리연꽃과 더 크고 노란색 꽃을 피웁니다.
그 중 어리연꽃과 노랑어리연꽃은 서로 사촌지간이지만 꽃의 모양도 삶의 방식도 차이가 있어요~
노랑어리연꽃은 꽃잎도 노란색이고 잎은 물 위까지 자라는 특징이 있어요!



꽃	꽃줄기에서 황색 꽃이 핀다.
잎	둥글며 밑은 심장모양
열매	납작한 타원형 모양
특징	잎모양이 연잎을 닮았다.

관찰포인트를 알아볼까요 ^^

노랑어리연꽃은 내장호자연학습시설의 인공 습지에서 만날 수 있어요!
여름에 수련과 함께 노랑어리연꽃은 습지에서 매우 아름다운 모습을 연출하고 있으니 꼭 관찰해 보세요!